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 길 풍경



천안시서북구문화원
www.cnkccf.or.kr/sunghwan.do

발 간 사



이 관섭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원장

길 풍경이 만드는 새로운 천안 만나기

우리가 매일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리의 풍경은 언제고 우리 삶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천안의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과 인테리어, 간판, 색채, 조형, 가로등, 심지어 벤치까지….

그 뿐 아닙니다. 역사의 현장, 문화의 흔적, 인물들의 숨결은 물론, 민속과 민담, 술한 지역사의 애환도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삶과 애환을 밝혀 주는 등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소들은 늘 가리워져 있습니다. 천안의 풍경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자본주의와 상업주



의에 밀려 잊혀지고 가려지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천안을 천안으로 만들고 있는 길목과 골목의 풍경들을 살펴 매년 「천안의 길 풍경」이라는 대 주제로 이야기를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오르고, 공간을 뛰어넘고, 생각의 범주를 넓혀 천안 곳곳을 둘러보고 그 속에 담긴 문화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천안을 터전으로 하는 시민들의 치열한 삶들이 만들어낸 집들과 길들과 불빛들이 자아내는 고운 풍경을 말입니다.

물론 속도의 시대에서 거리의 풍경과 장소의 기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들이 지금껏 천안사람들의 ‘삶터’였던 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뜨거운 숨결 위에 지금을 살아내는 이들의 숨결이 더해진 본지가 담고 있는 18꼭지 이야기들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더해진 삶의 발걸음으로 천안의 길들은 더 빛 날 것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축 간 사



박상돈
천안시장



배어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맛볼 수 있기를

천안의 풍경을 눈으로 발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려낸 ‘천안, 길 위의 풍경’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사 정립에 진력해 오는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보존과 전승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보이시더니 이번에는 천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곳의 풍경을 이미지로 함축하고 현장의 느낌을 살려내 정체성을 간직케 하는 지역문화 보존 활동에 힘쓰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반갑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발전의 이면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과

역사적 사건, 인물들의 흔적이 배인 거리를 추억으로 되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18군데 길들 저마다 지닌 문화적 배경을 작가가 직접 걸으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하고 견문이 덧붙은 길 풍경에는 개발되고 변화하는 도시화 과정과 새로운 도시문화가 전개되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기록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제목 그대로, 길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작가들의 기록은 고즈넉한 거리 풍경이나 깨진 기왓장, 놋눅한 바람 소리 같은 소소한 풍경들에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천안 곳곳에 배어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익숙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느끼지 못했던 천안 곳곳의 모습을 세상에 없는 귀한 풍경으로 그려주신 작가들과, 익숙한 풍경이지만 아름다움으로, 세상에 없는 풍경으로 만들어주신 서북구문화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지가 독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가을

목 차

02 발간사

길 풍경이 만드는

새로운 천안 만나기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원장 **이관섭**

04 축간사

배어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맛볼 수 있기를

천안시장 **박상돈**

노
준
희

영상작가

11 도서관이 달라지면 생기는 일

21 천안 동서남북 백 리 조망의 명당,
천안타운홀 전망대

30 천안을 살짝궁 알려주는 곳,
천안지역사전시관

38 빵집에서 나 홀로 빵빵한 데이트

48 뮤지엄호두, 예술이 쉼을 만날 때



이정우

천안문학관 관장

59 연탄, 한때 뜨거웠던 기억

68 시간의 묵음

73 민촌 이기영과 천안

83 도시재생 시대! 원도심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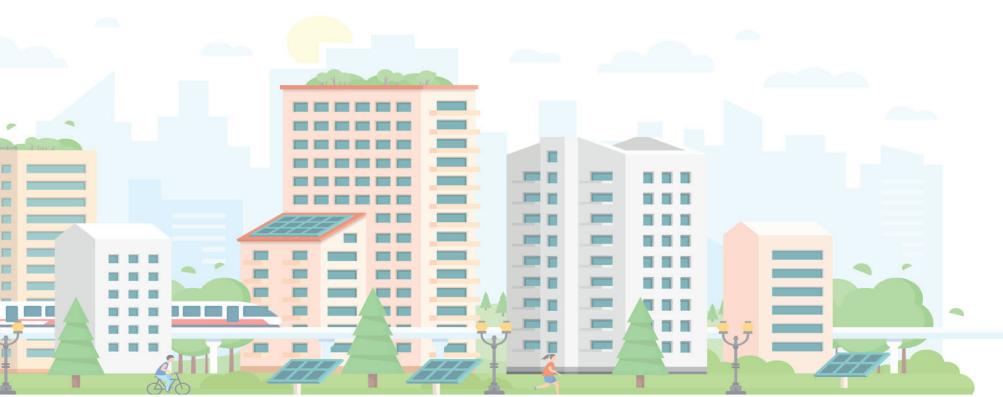
윤평호

대전일보 부장

93 열정으로 탄생한 천안명소 탐방길

109 천안의 물 · 산을 걷다

115 평화를 꿈꾸는 천안 한국전쟁 순례길



윤성희

문학평론가

- 131 박문수 만나러 가는
북면 은지리

- 150 디아스포라의 수구초심,
국립 망향의 동산

김학수

충남시사신문 기자

- 165 두 마리의 천안거북이

- 173 천안 광덕산에서 연리지를 만나다

- 182 천안삼거리공원 구석에서
'춤바람난 그들'

- 193 천안에서 '홍대용 · 홍양호'
선생 찾기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길풍경

글_ 노준희
영상작가



글
노
준
희

도서관이 달라지면 생기는 일 사계절 북캉스의 천국, 도서관

천안시에는 모두 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구나 읍면동 위주로 설립한 공립작은도서관 13곳과 동네마다 위치한 시립작은도서관도 약 60개가 있다. 각 초중고 도서관과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까지 합치면 천안시에는 매우 많은 도서관이 산재해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 설립 운영하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도 있다. 이쯤 되면 천안시는 도서관 부자 아닌가.

그런데 그중에서 지난 6월 말 리모델링을 끝냈다는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궁금해졌다. 그야말로 천안시를 대표하는



천안시 중앙도서관 입구

도서관인데 가본 지인의 말로는 아주아주 좋아져서 몇 시간을 그 안에 있어도 좋을 정도라고 했다. 얼마나 멋지고 쾌적하게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가봤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30년이 넘은 건물에서 풍기는 예전의 낡고 칙칙한 이미지는 온데간데없었다. 작지만 지상주차장도 있었다. 도서관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와우! 새로운 세상이었다. 낯설 만큼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다. 건물 뼈대는 그대로이지만 최신도서관 트렌드를 반영해 탁 트인 신상 도서관, 그 자체였다. 오호~ 여기 진짜 멋지게 바뀌었는데?

1층 왼쪽에는 ‘러닝커먼스’가 크게 자리했다. 자유로운 좌석 배치, 방해받지 않는 책상 배열, 일률적인 책걸상 디자인 이 아니었다. 장소 구획 구분 또한 다채로웠다. 거의 모든 좌석에서 자유롭게 개인형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 조성했다.



1층 러닝커먼스



1층 어린이 자료실

독서는 물론 공부하기도 너무나 좋은 장소였다. 도서살균기는 당연히 있고 언제든 반납이 편리하도록 무인반납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반납서가를 준비 중이었다. 예약도서 대출기도 있고 최신도서관인 티가 풀풀 났다.

오른쪽에는 ‘어린이자료실’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서가로 채워둔 곳이다. 영유아도 데려와 책을 읽을 수 있는 ‘소곤소곤방’과 동화구연을 위한 ‘동화구연방’도 있고 수유실도 갖추고 있었다. 점점 아이가 귀한 세상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아이 키우는 가족도 거리낌 없이 책



2층 일반자료실

읽으러 올 수 있게 해놔서 좋았다. 마음속으로 ‘잘했네!’ 칭찬 한마디 던졌다.

2층은 일반 자료실이다. 여기도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좌석 배치가 다양해 좋았다. 사람들이 가득 있었으나 조용했다. 서로 방해되지 않을 백색소음만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편안해 보였다.

천안시중앙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3층에 있다. ‘천안학자료관’이 그것이다. 천안 관련한 자료는 물론이고 천안 지역 작가들의 대출 가능한 작품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웬지 낯익은 책이 보였다. 이심훈 작가의 ‘느림과 기다림의 장항선 인문학 기행’을 단권으로 전시해 둔 게 아닌가. 반가웠다. 이 작품 출간 시 참여한 데다 2022년 한국지역출판연대에서 주는 공로상을 수상할 만큼 잊혀가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잘 끌어낸 책이었기에



3층 천안학 자료관



3층 지역작가 서가

더 반가웠다. 이심훈 작가가 정말 귀한 작업을 한 책이다. 존경을 표한다.

꼼꼼히 돌아보니 한쪽 서가에 아는 작가들 이름이 눈에 콕 콕 박혔다. 역작 200권을 발간한 작가답게 서가 두 칸이나 차지한 소중애 작가, 말재간 좋은 이정록 작가, 흡인력 있는 글의 김미희 작가 등 지역작가들 책이 골고루 진열돼 있었다. 좋아하는 작가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만나다니! 입가에 미소가 자연스레 번졌다.

코너엔 윤성희 문학평론가의 책이 꽂혀있었다. 책 읽기 정

말 싫은 사람에게도 이 책 하나는 추천한다. 이 한 권만으로도 이야기는 물론 물론 군더더기 없는 완결성 높은 문장을 배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드는 책이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좋은 글을 읽는 즐거움을 담뿍 느낀 책이다. 에세이 중 인기가 있어 2쇄를 찍은 책이기도 하다.

3층에는 또 ‘1318채움실’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공간이 있다. 대·소 강좌실과 동아리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다. 없는 게 뭔가 싶다.

올해 더위는 역대 최고로 무더웠고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는 무서운 폭염 그 자체였다. 지속되는 폭염은 단순히 기후의 종류가 아니라 자연재해 수준이 된다는 걸 많은 이들이 절실히 느꼈던 한 해였다.

그런데 와서 보니 도서관은 그야말로 황금 피서지다. 종일 시원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노트북으로 일도 하고 이어폰 꽂고 영화도 보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자유로이 자기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다. ‘저들은 뭘 좀 누릴 줄 아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이도 있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잠자려 집에 가기 어려우면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하긴 뜨거운 태양을 뚫고 집에 다녀오긴 무리다. 어쭈, 내가 지금 생

판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매너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해하고 있네? 음…. 이해하면 안 되는 건가?

좀 아는 어느 20대가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작가님은 왜 그렇게 남을 많이 배려해요?”

내가 어느 면을 봐서 그렇게 배려형으로 보이나? 외모와 언변 스타일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다. 하지만 나이만큼 세상의 경험을 웬만큼 한 상태이고 (일일이 말로 다 못 하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많은 걸 겪어봐서 그런지, 급한 성격 때문에 불끈불끈 화가 나다가도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래도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

도서관 탐색을 계속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도서관 이용은 돈 10원 안 내고 누릴 수 있다. 카페만 가도 음료값은 기본으로 들지 않나. 오래 있으면 눈치 주는 곳도 있고.

도서관 이용 자체는 도통 돈 들 일이 없고 오래 있는다고 나가라는 사람도 없다. 음료를 먹고 싶으면 지하 1층에서 1,700원짜리 아이스아메리카노부터 다양한 음료를 사 먹으면 된다. 요즘 같은 물가에는 매우 싼 가격이다.

도서관에 와 보니 괜히 큰돈 들여 멀리 피서 고생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찐’하게 들었다. 가뜩이나 무더워서 좀만 움직여도 힘들고 지치는데 집 근처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하면 가까운 곳에서 공짜 피서를 할 수 있다. 내 집 에어컨 비용 걱정도 뚝이다.

뭐니 뭐니 해도 여름 바캉스는 북캉스가 최고인 듯. 사계

절 생산적인 시간을 누리기 좋은 곳으로 손색없는 곳이 도서관이다. 도서관 가까운 도세권에 집이 있다면 진짜 좋은 데 사는 거다. 매우 문화적인, 가장 문학 친화적인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니까. 책과 함께하는 천안시민들의 북캉스 명소 중 하나, 천안시 중앙도서관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지인이 한 말이 생각난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참 없어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이 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양 있어 보이고 점잖아 보인다는 거다. 그게 다 장소가 주는 특별한 연관성 때문 아니겠는가.

도서관 탐험을 기분 좋게 하고 나왔는데 건너편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가 떡하니 보였다. 이 동네 좋은 건 다 있네? 내가 여기서 독립영화 한 편 보려면 차 타고 30분 이상 와야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서도 영화감상이 가능하다는 거. 아이고 부러버라~!

비채는 영상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며 독립영화 위주로 저렴하게 영화를 상영하는 인디플러스가 있는 곳이다. 매주 일정표를 보면 국내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영화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게다가 관람료도 저렴하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서 단 한 곳뿐인 인디플러스다.

이렇게 귀한 독립영화 상영관이 바로 중앙도서관 앞에 있다. 이 동네 주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최신 독립영

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또 비채 바로 옆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지역 청소년들의 쉼터와 배움터가 되고 동아리 활동, 여가 활동 등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로 생겨 천안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천안타운홀과 타운홀 전망대도 근처에 있다. 천안시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처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길 따라 쭉 갔더니 천안역과 원도심으로 이어진다. 천안역 맞은편엔 개봉관 CGV가 있고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천안시도시재생어울림센터, 천안시도시창조두드림센터 등이 있다. 그 안에는 창작 의욕을 돋우는 천안시창작스튜디오, 젊은이들의 음악적 흥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충남음악창작소도 있다. 더 가면 더 많은 문화공간을 만나겠지. 저 멀리 독립책방 허송세월도 보이네.

자연스럽게 이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가까운 거리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기운을 일깨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보였다. 천안의 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천안 곳곳 눈을 뜨면 보이는 곳들에서 매일 쉴 새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다.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곳들인데 다만 우리가 살기 바빠 놓치거나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보고도 무감하게 반응하는 탓은

아닐까. 또 피로한 세상에서 그저 눈을 감아버린 건 아닐까.
복잡한 삶의 첫바퀴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진정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휴식은 무얼까.

앞만 보고 달렸던 지난날을 돌아본다. 나의 뛰박질은 여전
히 느려서 아직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했다. 뛸 힘이 남아 있
을 때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 꼭 품을 수 있길 기대하며 길
건너 그곳으로 갔다.

글
노
준
희

천안 동서남북 백 리 조망의 명당, 천안타운홀 전망대

204미터 상공에서 오룡쟁주를 굽어보다

사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다. 천안타운홀 전망대 말이다. 여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천안의 장소 중엔 최고 높다. 아파트 47층, 204미터 높이다. 이른바 공중 부양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딱 좋을 만큼 높은 전망대이기 때문이다. 그 한 층 아래 천안타운홀이 있다. 생각만 해도 어지러운데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천안아산역 근처에 펜타포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그 곳 저층엔 상가가 형성돼있어 누구나 출입 가능하지만, 주거



천안타운홀 전망대

지역인 고층엔 주거인과 방문객 외엔 올라갈 수가 없다.

아산에도 전망대가 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아산그린타워’ 안에 있는데 인기 예능 ‘런닝맨’도 여기서 찍었고 그 덕에 광장한 핫플레이스가 됐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거기도 아파트 50층 높이라고 하는데 주변을 널리 멀리 볼 수는 있어 좋았다.

천안타운홀 전망대에서는 세월이 무상하게 발전한 천안의 모든 지역이 촘촘히 거의 다 눈에 들어올 만큼 한눈에 펼쳐지는 위치다. 같은 듯 다른 느낌. 그 느낌을 즐기려 갔다.

타운홀 전망대에 가려면 동남구보건소에 주차해도 되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에 주차해도 된다. 보건소는 무료라서 그런지 차 댈 곳이 만만치 않았다. 평소 주차 운이 좋은 편이었지만 여기선 몇 바퀴를 돌아서 겨우겨우 이면 주차할 수 있었다. 어쨌든 주차는 했으니 가쁜한 마음으로 타운홀



천안타운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더 편하게 주차하려면 아파트 지하에 차를 대면 된다. 주차요금을 내야 하지만 곧바로 타운홀 엘리베이터로 이어져 편하다. 엘리베이터는 47층까지 초고속으로 움직였다.

문이 열리자, 눈에 펼쳐진 곳은 시원한 카페였다. 뜨거운 여름을 피해 몰려온 방문객들의 환담이 마치 폭포수를 맞은 것처럼 귓전을 때렸다.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 오호~ 진정 천안시민들의 휴식처가 맞았다.

360도 파노라마로 천안 시티뷰를 볼 수 있는 이곳에 드디어 왔다. 실은 친구들과 같이 오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혼자 오길 잘했다. 고소공포증을 운운하며 힘들어한 친구를 걱만 쑥 빼고 올 수도 없잖은가. 우정 빼면 시체인 아줌마들이~ 차라리 혼자 와서 독박을 쓴다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편했다.



360도 파노라마 시티뷰

건물 전체가 통창이었다. 여기를 봐도 시원, 저기를 봐도 시원시원했다. 천안역이 내려다보였고 아산을 향하는 장항선 철길도 보였다. 장항선만 보면 이심훈 작가의 책이 생각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만큼 애정을 담은 책이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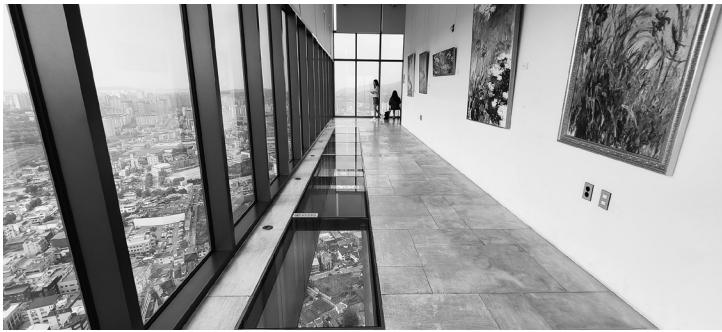
대전 방향으로 내려가는 철길도 보였다. 저 철길을 따라 대전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다시 철길이 갈리겠지. 그 남쪽에서는 서울이 얼마나 멀고 고달팠을까. 천안역에서도 서울로 가는 철로는 아련히 이어졌다. 요즘은 KTX로 고속 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근대 사람들의 도시 이동도 말 그대로 고생보따리였을 듯하다. 웬지 시간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전방위로 뻗은 철길은 천안이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임을, 천안이 교통요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케 해주었다.

철길 외 204미터 상공에서 보는 천안의 다양한 길은 그야 말로 거미줄처럼 얹혀있었다. 멀리서 볼 땐 가느다란 거미 줄 같아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길과 연결된, 그 길을 지나 다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깊게 묻혀있을지. 마치 빽빽하게 이야기 버튼을 표시해 둔 보물 지도를 보는 느낌이었다.

정확히 전망대라 부르는 곳엔 에어컨이 약해 사람들은 거의 카페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바깥쪽엔 발끝부터 천장 끝까지 빙 두른 통창이 압권이었다. 그것도 동서남북 모두가 빈틈없이 통창. 통창 앞 테이블에 앉으면 백 리 밖 풍경도 눈 아래에 펼쳐진다. 그 풍경을 놓칠세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꽉 찼다. 여기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더위가 뭐예요?’ 하겠다. 탁 트인 전망은 짜릿짜릿했다. 발밑이 땅에서 약 204미터 떨어진 아슬아슬한 공중인데 어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을 가다듬고 정면을 쭉 조망하니 무작정 가슴이 시원해 진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어디까지 가슴이 내달리는지 모를 만큼 시원하다.

앗, 그런데 바닥에 통유리 깔린 구간이 나타났다. 아산그린타워 전망대에서도 익숙한 통유리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통유리 바닥을 봐서 그런가 차마 그 위를 걸어가지 못했다. 웬지 아산그린타워 전망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통유리 바



바닥 통유리 구간

닥 같았다. 에공, 이걸 못 걷다니… 웃음이 나왔다.

대부분 테이블이 통창 쪽보다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기둥 벽 쪽에 배치돼 있었다. 그런데 반대편은 통창에 딱 붙은 채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은 무섭지 않은 모양이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하긴 높은 곳을 무서워하면 절대 못 올 곳이다. 기둥 벽을 빙 둘러 그림도 걸려있다. 유명 화가들 그림이었는데 실사 프린트 작품이었다. 실내장식용 같았다. 초창기는 이곳에서 전시도 한다고 들었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 바퀴를 더 돌았다. 내가 아는 장소가 있는지 다시 발아래를 살폈다. 남쪽을 바라보다 천안 남산 같은 곳이 보였다. 사실 주변에 건물이 많아 확실하지 않지만, 방위상 그런 듯했다. 서쪽을 보니 멀리 펜타포트가 보였다. 주변 상공을 비워둔 채 눈에 탁 띠는 저렇게 높은

건물은 현재 천안에서 펜타포트밖에 없다. 펜타포트 뒤 아련한 너머에 건물인지 산인지 모를 스카이라인이 아련히 보였다. 타운홀 전망대에 간 날은 그리 맑지 않아서 그 너머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맑은 날엔 분명 백 리를 볼 수 있을 만큼 막힘없는 스카이라인이었다. 북쪽을 굽어보니 오른쪽으로 멀리 태조산과 성거산이 보였다. 천안을 대표하는 두 산을 함께 보다 보니 오룡쟁주 이야기가 떠올랐다.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따르면 오룡쟁주는 『고려사(高麗史)』에 전하기를 술사(術師) 예방이 고려 태조에게 천안 지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오룡쟁주 형국이라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예방은 “천안도독부는 풍수지리적인 형국으로 볼 때 삼국의 중심에 해당하며 다섯 용이 구슬을 다투는 지세로 여기에 관부를 설치하면 후백제가 스스로 항복해 올 것”이라고 태조에게 아뢰다. 태조는 그 말을 듣고 산에 올라 직접 지세를 살펴보고 천안부를 설치했다고 전해진다. 후백제를 공략하고 싶은 태조에게는 지세를 이용한 전략적 요충지가 매우 필요했다. 그 핵심지역이 바로 천안이었던 것. 태조는 천안에 부를 설치하고 풍수지리설을 활용해 오룡쟁주지지(五龍爭珠之地)라 선선했다고 한다.

오룡쟁주 지세에서 다섯 용이 서로 차지하려 한 여의주가 바로 천안 남산이라고 다들 입을 모은다. 실제로 신기하게 남산은 너른 평지 가운데 혼자 우뚝 솟아있다. 높지는 않지만

마치 편평한 바닥에 볼록한 반구를 뒤집어놓은 듯한 형태다.

천안시민이라면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오룡쟁주 이야기. 실제로 오룡으로 불만한 산의 위치와 남산의 형상, 역사적으로 기록된 태조의 후백제 공략이 그 신빙성을 받쳐주고 있다.

홍대용과학관의 천안 풍수지리를 설명한 안내판에는 천안시 외곽을 감싸는 외사룡과 시가지 일대 내오룡, 총 아홉 마리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형상이라고 설명해 놨다. 이 중 내오룡에 해당하는 산은 동쪽에 청룡 수조산, 서쪽은 백룡 월봉산, 남쪽에 적룡 일봉산, 북쪽 흑룡 입암산, 중앙에는 황룡 왕자산이라고 안내했다. 이런 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산 이름도 있었지만, 설화를 통해 의미를 부여한 산이기에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월봉산은 여의주를 다투기엔 너무 멀리 떨어진 산이다. 실제 지도에서도 가장 멀리 있었다. 그렇다 해도 천안에서 꿈틀거렸다는 오룡과 여의주의 자태를 한곳에서 다 조망할 수 있다는 건 흥미롭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설화 같은 역사적 지점을 직접 확인해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니 이 모든 풍광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타운홀 전망대에 어찌 오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시원한 차 한잔 마시며 유유자적 바라보고 감상하고 옛이야기 떠올려볼 수 있는데 말이다. 짜릿한 발밑 풍광에 스릴 만점 토크도 가능

하니 더 시원한 공간일 수밖에.

야간에 오면 더 멋지겠다. 저 많은 천안의 건물에서 새어 나오는 빛은 도시의 밤이 얼마나 뜨겁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겠지. 그 빛을 치연히 바라보며 우리는 또 상념에 젖을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로 우리 삶을 매만져볼지 모르겠다. 언제고 다시 온다면 야간에 와보고 싶다. 천안 전체 야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 가능한 천안타운홀 전망대에서는 비싼 입장료 없이도 맘껏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길 따라 당도한 천안타운홀 전망대에서 천안과 역사와 풍경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천안의 밤은 영글 듯 깊어 갈 테니까.



천안 백 리 조망 시티뷰

글
노
준
희

천안을 살짝궁 알려주는 곳, 천안지역사전시관

204미터 상공에서 오룡쟁주를 굽어보다

예부터 탁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천안은 일제강점기에
도 독립운동과 항일 정신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독립운동가
들의 공적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관련 전시물을 모아둔 곳
이 독립기념관인데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둔 것만 봐도 그 이
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천안지역의 지역사 관련물을 전시한 전
시관이 ‘짠’하고 생겼다. 천안지역사전시관이란다. 남산근린
공원 내에 있는 전시관이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34억2,400만 원을 들여 옛 남산별관 자리에
대지면적 473.81m², 총면적 699.5m²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천안지역사전시관

을 신축했던 것. 생긴 지 얼마 안 돼 아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았다.

여기 가면 천안을 정말 잘 알 수 있나? 천안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천안을 더 잘 알고 싶을 때 가보면 좋겠단 생각에 ‘뭐가 있을까’ 기대감을 품고 직접 가봤다. 어랏? 와서 보니 전시관은 오룡쟁주의 여의주라 불리는 남산 바로 아래 있었다. 이건 마치 여의주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오룡쟁주를 알고 남산 여의주를 알고 나니 입장 자체가 재밌어졌다.

1층은 갤러리로 개관을 축하하는 전시를 진행 중이었다. 공개 수집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1910년부터 1990년 대까지 생활사 물품 등을 전시했다. 옛 물건을 모으는 취미



1층 전시실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관을 채워주다니 감사할 일이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천안 근현대 유물 수집가 하태규 선생의 소장품이 주를 이뤘다. 관공서가 스스로 다 해낼 수 없을 때 돋는 이들은 항상 시민이란 걸 여기서도 깨닫는다. 시민 공경 행정 꼭 필요하다.

갤러리 입구에서 보는 내부는 마치 작은 생활사박물관 같았다. 60~70년대 가게들을 재현한, 작은 촬영장 세트 같은 모습과 그 시절 사용했던 공중전화, 재봉틀, 담배 등에 관한 물품들을 전시해 놨다. 영화 포스터와 레슬링대회 포스터도 보였다. 그 시절이 생각나 살짝 미소도 짓게 됐으나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금방 볼거리를 다 본 느낌이 들었다.

놀라운 건 40년대 발간된 윤동주 시집과 천상병 시인의 창작노트, 현대문학 창간호 등 근대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 문학 희귀도서 원본이 전시돼 있었다는 점. 1975년 발간한 ‘천



2층 지역사 전시실 1



2층 지역사 전시실 2

‘안문학’ 동인지도 보였다. 현재까지 제77권을 발간했으니 천안 문인들의 창작욕과 문학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꾸준하고 열정적인지 알 수 있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천안문학. 지천명이 된 천안문학이 얼마나 더 달라지고 발전할지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겠다.

2층에 올라가니 본격적인 전시물이 보였다. 입구 배너에 천안이 천안역 중심의 도시로 성장한 시기는 1905년 전후라고 쓰여 있었다. 그 시절 모든 물류가 이뤄지는 기차역 있는 곳은 당연히 도시의 중심지였다. 이후 천안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70~80년대는 충남의 경제중심도시로, 2000년대는 침



천안문화관 전시코너

단산업과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렇게 성장한 천안은 현재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고 충남을 가로지르는 장항선의 시작점이며 100년 넘는 철길 역사를 지닌 천안시가 되어 65만 명이 넘는 인구를 품어주고 있다. 같은 생활권인 아산의 35만 인구를 합치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2층 역시 공간은 작았지만 뭔가 빼곡한 느낌이었다. 찬찬히 훑어봤다. 천안의 옛날을 담은 흑백사진이 한쪽 구석 벽면에 가득했다. 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그 시절 일반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사진 찍기 어려웠다. 지금처럼 바로바로 놀라대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걸 지우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니. 더더구나 일하는 모습을 열심히 찍진 않았을 것 같다. 아마도 관공서에서 보도용으로 필요해서 찍은 사진이 많은 듯했다. 영상도 있었다. 우

리 평범한 지역민들의 그 시절 실상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고대부터 통일신라,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천안의 역사를 소개한 파티션 패널도 보였다. 굵직한 역사적·행정적 사건으로 설명해 두었는데 일종의 천안시 타임라인이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천안 화축관은 조선시대 천안군에 건립되었던 행궁이라 했다. 일제강점기에 경찰서와 현병대 건물로 사용되다가 철거되었다고 한다.

1963년 시로 승격된 천안시는 1990년대부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인프라 구축에 힘써 일찌감치 충남의 수부 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 당시 아주 인구가 천안 본래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안에 모여들었던 말인가.

세계적인 축제인 천안홍타령춤축제의 기원에 관한 설명도 있었다. 태평과 풍년을 바라던 민속놀이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했다고 쓰여 있었다. 2020년부터 ‘명예문화관광축제’가 된 천안홍타령춤축제는 매년 8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 해는 참가국 수를 30개국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더 많은 나라의 더 많은 춤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거다.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눈앞에서 직관하는 재미도 느끼고 열정 가득한 현장감을 맘껏 누릴 수 있다구~ 바로 이 천안에서!

이곳에 와서 보니 천안에 관해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소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 천안시민이라면 한번은 와보고 천안에 관한 기초지식을 담아가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공간이 작아서인지 너무 금방 관람을 끝내버렸다. 아쉬우리만큼 금세 관람했다. 바쁜 현대인들은 금방 끝낼 수 있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천안을 제대로 알리기엔 매우 부족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찾아보니 와본 이들의 지적이 따끔했다.

4층짜리 전시관에 근무 인원이 단 1명이었다. 1층이 갤러리와 여행자 편의시설, 인포데스크가 있고 2층은 시조회 경로당과 다목적실, 3층이 전시관, 4층은 천안문화재단 사무실이었다. 물론 전시실이 작지만, 건물관리와 전시관 운영까지 혼자 책임지는 구조였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이곳을 방문한 날 사실 직원을 보지 못했다. 직원은 사무실에서 내근하고 있었겠지. 그래서인지 월요일 휴관하고 공휴일에도 휴관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람이 더 몰리는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천안시가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을 못 하는 상태라고 했다. 공간이 작은 만큼 전시 내용도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아 보였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내년 5월 재개관 예정인 천안박물관이 천안의 근현대사를 전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밝

힌 바가 있다. 결국 하나의 콘텐츠를 천안시 두 산하기관이 쪼개서 전시한다는 느낌을 주고 만 것이다. 그것도 턱없이 부족한 근현대 전시물인데. 그렇다면 천안지역사전시관을 개관한 이유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사전에 두 전시관 내용물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길 기대한다.

인력 충원이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관리 운영도 한결 나아 질 것이다. 다양한 지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좋고 이용자 편의도 배가 될 거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예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내년은 달라져야 한다. 35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지은 건물과 콘텐츠가 또 의미 부실하게 유지되면 안 되고말고. 다음 아님 천안의 지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 아닌가. 천안시민들의 애향심을 굳힐 수 있는 멋진 하드웨어로 거듭나길 바란다.

달라질 천안과 전시관 운영을 기대하며 길의 도시 천안에서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보겠다. 예술을 품은 그 어느 곳으로.

글
노
준
희

빵집에서 나 홀로 빵빵한 데이트 전국 인플루언서 성지 ‘뚜쥬루’, ‘천안의 맛’이 되다

예전에 일 때문에 종횡무진 천안을 누비고 다닐 때 알았었다. 천안이 참 넓다는 걸. 넓다는 생각에 튀어나온 것은 ‘구룡동에 가보자’였다. 실은 언뜻 떠오른 빵 냄새를 따라갔다고 할까. 그곳에서 만난 장소는 뚜쥬루. 바로 뚜쥬루가 있어서 구룡동을 찾았다.

뚜쥬루 빵집을 안 지는 오래됐다. 처음엔 그저 빵이 좀 맛 있는 집, 인기가 있는 빵집 정도로만 알았다. 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식성이어서 직접 먹기보다는 선물용으로 구매하거나 빵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사다 주었을 뿐이었다.



줄서는 뚜쥬루

불당동 뚜쥬루 거북이점은 접근성도 좋고 주변 작은 숲을 품은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가끔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뚜쥬루가 인기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뚜쥬루의 폭발적인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 인기는 2013년 천안 구룡동에 돌가마점을 시작한 곳에서 2019년 뺑돌가마마을을 오픈하면서부터였다.

화제의 뺑돌가마마을에 들어섰다. 초창기 와본 적이 있다. 생기자마자 우연히 지날 일이 있었던 터라 호기심에 들려 본 곳이다. 그때도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마을처럼 꾸며놨기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더 확장해 2



팥 끓이는 곳

만9000m²(약 9,000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동화 속 마을처럼 꾸민, 말 그대로 빵을 중심으로 한 환타지 마을이 되었다. 이른바 빵전문관이다.

장인정신으로 100% 국산 팥을 끓인다는 곳도 호빗 집처럼 해놨다. 지난해만 국산 팥을 26톤을 사용했단다. 또 다른 호빗 집에서 매시간 뚜쥬루의 대표상품 거북이빵 무료 시식을 펼쳤다. 용케 때를 맞춘 터라 금방 구워 따끈한 거북이빵을 흡입할 기회를 얻었다.

‘아싸~’ 마치 당첨된 듯 흐뭇해하며 오물거렸다. 느린 발효빵이라는 거북이빵은 풍미도 식감도 좋았다. ‘역시 빵은 금방 구운 게 맛있어’ 갓구운 빵의 풍미와 온기를 그대로 느끼는 특혜를 누린 것 같았다. 빵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맛 있다, 진짜 맛있다”를 연발했다. 이러니 빵 구매 후 계산하는 줄이 길게 늘어설 수밖에. 아이고… 빵 파는 매장에 들



훤히 보이는 빵 작업실

어가는 줄부터도 길었다.

마을을 둘러보니 그저 맛있기만 한 빵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뚜쥬루 빵이 어떤 빵인지 자세히 소개해 놨다. 안전하고 발효 시간을 충분히 가진 느린 빵을 생산하고자 방부제와 색소, 광택제 등 화학첨가물을 배제한 건강한 빵을 생산한다고 했다. 국산 팥 사용은 물론 천안 흥타령쌀을 이용해 쌀케익도 만든다. 천안산 무농약 딸기만 매년 2억 원어치 이상 사용할 정도로 재료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천안 생산물을 애용했다. 빵을 튀기는 튀김유도 개점 이래 단 하루만 사용한다고 했다. 어떤 이는 뚜쥬루 빵이 맛있지만 비싸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한 거 같았다.

올 2월엔 어린이 베이커리도 오픈했다. 매장 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빵과 과자들이 즐비했다. 빵 굽는 모습



어린이 베이커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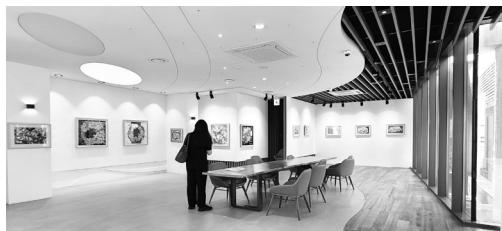


어린이 베이커리 2

과 발효되는 모습을 투명창으로 볼 수 있게 해놨다. 아이들이 직접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볼 수 있는 공간도 갖췄다. 손을 씻는 수전도 아이들 키 높이에 맞았다. 아이 동반 고객이 쉴 공간도 배치해서 꽤 많은 사람이 매장 안에 있었다. 통밀제분기 등을 만들어 전시한 천안쌀제분소도 어린이 베이커리 가는 길에 있었다. 아이들 눈길을 사로잡긴 충분했다. 성인들도 ‘이런 곳이 다 있네’하며 발 디딘 곳이 뚜쥬루인데 하물며 아이들은 어떻겠는가. 엄마 아빠 손잡고 이곳에 오자고 또 조를 만한 곳이었다. 빵만 맛있는 게 아니라 정말 볼거리를 듬뿍 주는 곳이 바로 뚜쥬루 빵돌가마마을이다. 이런 놀이동산을 본 적이 없다.



어린이 베이커리 3



케익하우스 2층 전시실

어린이 베이커리뿐 아니라 케익하우스, 빵마을 카페 등 빵과 팥빙수 등 음료를 파는 매장이 마을 곳곳에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꽤 많았다.

빵집을 꾸며놔 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한 번 와보면 전국 빵순이, 빵돌이들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특히 아이들에겐 맛있는 빵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 좋다.

최근엔 카페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고 하던데 이곳 역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다. 물론 손 꼭 잡은 연인들도 많았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뚜쥬루. 입소문은 금세 퍼

지고 전국의 인플루언서 블로거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빵돌가마마을을 다녀가기 시작했다.

뚜쥬루의 인기를 감지한 천안시는 2021년부터 ‘빵의 도시 기획’을 시작했고 2022년부터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천안의 빵 명소를 알리겠다는 의도였다. 가만 놔둬도 잘 될 뚜쥬루는 전국에 더 알려졌고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전국 빵의 성지가 되었다. 덩달아 천안 다른 빵집들도 이름을 알릴 기회가 더 생겼다. 한때 전국 빵소(빵 명소) 소개글이 블로그에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유명 빵소 한 번 안 가 보면 대화에서 밀릴 정도로 빵은 대화의 인기 주제였다.

이쯤 되니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그동안 들었던 뚜쥬루 관련 소문의 진실이 궁금해졌다. 마침 소문을 정정하는 뚜쥬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천안쌀제분소 옆에 소개돼 있었다.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 ‘뚜레주르’와의 관계다. 뚜레주르는 뚜쥬루가 1992년 서울 용답동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난 5년 뒤 개점했다. 뚜레주르는 오픈 직전 상표등록출원을 했으나 뚜쥬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뚜쥬루는 뚜레주르의 상생협력 계약 체결 요구를 받아주고 아무 대가 없이 뚜레주르 상표 사용에 동의해 줬다. 상표 사용료도 받지 않았다.

또 뚜쥬루는 당시는 획기적으로 당일 판매 후 남은 빵을 다음 날 50% 할인해서 팔았다. 이후 매출이 늘었고 서울 단일 점포 제과점 중 매출 5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그러

나 파리바게트 본사가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계약해 버려 그 장소를 비워줄 수밖에 없었다. 권리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이 일로 대기업 체인 빵집이 동네빵집 500미터 이내 진출을 금지하는 이슈를 확산했다.

지역 빵집이 대기업 못지않게 성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빵을 만드는 철학과 건실한 경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뚜쥬루, 모두 직영이고 체인점은 없다.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창업자 윤석호 대표는 1978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오지 근무하며 받은 해외 근무수당을 3년간 모아 지금의 성정점을 마련했다. 그는 TV 인터뷰에서 “천안이 빵의 도시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참 이 글을 쓴 날 저녁 뚜쥬루 대표를 TV에서 만났다. 생전 본 일 없는 사람을 관련 글을 쓴 날 만나다니 신기했다.

빵집 매출만 뛰어 소문났을까. 수상 경력도 화려했다. 서울 국제 빵, 과자전 경연대회 수상만 6번이다. 동상부터 최우수상까지 다 공략했다. 캘리포니아 호두 제품 경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여러 번 보였다. U.S 경연대회 수상과 독일 요리올림픽 IKA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다. 이 밖에도 수상 경력이 줄줄이다.

알고 보니 수상 이유가 충분했다. 유학기술인과 대한민국 제과기능장들이 일하는 빵집, 뚜쥬루였다. 천안 외에는 매장

이 없고 직영점만 있는 뚜쥬루는 천안의 자부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미 지역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천안시민들은 뚜쥬루에 호의적인데 대전 성심당과 비교하며 뚜쥬루의 가치를 논하곤 한다. 성심당도 대전에만 매장을 운영한다. 저렴하고 맛있는 빵을 사려는 줄이 건물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인기가 많다. 대전역에서는 기차를 타기 전 성심당 빵 가방을 든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대전 경제는 성심당이 먹여 살리나 싶은 정도였다. 뚜쥬루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더 차별화한 운영으로 빵의 고급화를 시도했고 빵 매장이 놀이동산 같은 이미지를 주는 복합공간을 만들었다. 게다가 케익하우스 2층은 멋진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이다.

지금까지 빵을 얇봤다. 내가 좋아하지 않고 건강과 거리가면 음식이라고 빵의 가치를 몰라봤다.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좋아하고 이렇게 빵을 찾아다니는 걸 즐거워할 줄 몰랐다. 그리고 요즘 들어 나 스스로도 빵을 먹는다. 먹힌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예전보다 거부감이 줄어 종종 먹는다. 살은 좀 찐다.

지역을 먹여 살리는 콘텐츠는 상당히 많을 것이나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낮을지도 모른다. 뚜쥬루는 빵문화, 먹거리 콘텐츠로 천안을 알리는 데 기여했고 천안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재료의 고급화에 신

경 써서 정작 이윤은 많지 않다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251억 원을 넘는다.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란다. 또 4개 매장 전 직원 23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상당수는 천안 출신이라니 이만하면 지역 향토기업이며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업 맞지 않은가.

천안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이처럼 지나치기 어려운 장소가 많다.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 길에 있는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다. 그 또한 다 길 따라가서 만난 거니까.

뚜쥬루는 천안의 보배가 될 것 같다. 계속 정도경영을 유지한다면 천안의 전설적인 빵집으로 오래오래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외지인들이 천안에 꼭 와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뚜쥬루라는 사실을 확인한 하루였다. 천안의 맛, 뚜쥬루였다.

글
노
준
희

뮤지엄호두, 예술이 쉼을 만날 때
천안 최초 레지던시 ‘천안장착촌’과
함께하는 미술관

길의 도시 천안을 따라가다 천안 최남단 지역인 동남구 광덕면까지 왔다. 광덕은 예전부터 연이 닿은 곳이어서 종종 갈 일이 생기곤 했다. 매우 존경하는 선생님이 사시는 곳이고 좋은 언니가 되어준 공무원이 일했던 곳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취재로 만나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다.

인연이 잘 닿아 마을신문 만드는 강의도 했었다. 신문이 예쁘게 잘 나온 편이었고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해서 감사했다. 경험 많은 베테랑 신문 디자이너와 협업도 늘 성공적이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었다. 급하게 연락받



오픈당시 무지엄호두

고 진행하다 보면 발행 후 아쉬운 지점이 생기곤 하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무리 눈에 불을 켜도, 다 같이 살펴도 놓치는 건 있기 마련이다.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했다면 그조차도 생기지 않을 일이었을 게다. 다행히 만든 사람 눈에만 보이는 작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서로 안 도하기도 했다.

최대한 그들에게 기사 쓰는 것부터 종이 신문 만드는 법을 세세히 가르쳐주었다.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에서 편집 일을 해본 덕분이었다. 원고 교정 일을 지속하는 일도 재밌다. 이건 나를 발전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즐거이 하고 있다.

지금 직장에선 기사 쓰는 기자와 영상 시나리오 구성안 쓰는 작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 업무강도가 센 편이다. 물론 작가 일이 우선이다. 그래도 갑자기 기사 쓸 일은 생긴다. 갑자기 기사를 쓰게 될 때 내 맘에조차 안 들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선택한 내용이라면 안 올리면 되지만 시의 성에 맞물려 회사에서 원하고 시간에 쫓기면 할 수 없이 그냥 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내 기사를 보면 그런 덜 익은 글들이 더 보여 참 민망하다.

천안창작촌으로 돌아가서 천안 최초 레지던시 천안창작촌은 약 7년 전 창작촌이 처음 생겼을 때 직접 발굴한 기사 장소였다. 창작촌 이수문 대표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화이트블러리라는 레지던시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림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파주에 이어 이곳 천안에 창작촌을 건립한 후, 돈은 없지만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최신 빌라 못지않은 최신 시설에 전국의 순수예술인 대상으로 입주작가를 모집하고 무상으로 임대했다. 월세는커녕 수도요금이나 관리비도 안 받았다. 전기요금만 받았다.

레지던지 운영만 6년째. 천안창작촌을 거쳐 간 예술가들이 한둘이겠나. 그들 전부는 아니지만 예술계에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을 종종 봐왔다. 직접적인 인연이 없어도 어디선가 그들 이름을 만나면 반가운 생각이 들 정도였다.



뮤지엄호두 아트숍

그런 화이트블러거이 지난해 겨울 ‘뮤지엄호두’를 개관했다. 물론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천안창작촌과 같은 곳에 있는 연관 운영체인 건 사실이다. 이름부터 호두가 들어간 미술관이었다. 광덕의 특성을 살린 어여쁜 이름이다. 지역 특산물인 호두와 예술이 어우러진 이름이라 더욱 흥미롭게 들렸다.

너무 궁금했다. 아는 건 없지만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에 가보고 싶었다. 마침 마을신문을 만드는 중이었고 신문에 실을 멋진 문화적 장소가 있으면 더없이 좋은 섹션을 꾸밀 수 있었다. 마을의 멋진 예술공간으로 소개하고 싶었다. 전시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은 적중했다. 뮤지엄호두는 개관전을 진행 중이었다. 신문제작팀과 마실 나가듯 뮤지엄호두에 들렸다. 개관 축하 전시로 중견작가인 임동식과 설원기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높은 천장만큼 넓



개관 전 임동식작가 작품

은 공간에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우리를 반겼다. 나무 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린 그림은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임동식 작가는 진짜 풀잎 너머를 본 듯한 그림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했다. 설원기 작가는 구상과 비구상이 섞인 듯한, 아직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

현장에 있던 뮤지엄호두 시설관리소장은 당연하게 광덕면 주민들을 환영했고 주민들도 뮤지엄호두가 마을에 들어선 걸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과 상생하고 싶은 의지를 뮤지엄호두는 정확히 표현했고 주민들도 반가운 마음을 투명하게 전달했다.

작품을 쭉 감상하고 미술관 아래층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봤다. 카페 이름도 ‘카페호두’였다. 호두라는 이름으로 광덕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광덕 특산물을 한번에 나타낸 이름이

되었다. 근데 이 카페, 가운데 있는 테이블이 눈에 확 뛴다. 마치 꽃잎이 길게 흐드러진 꽃 같았다. 주변 테이블과 음료 제공 배선대까지 전부 백색인데 다양한 곡선으로 디자인했다. 위층에서 내려다보는 건물 구조 덕에 풍광이 더 멋지게 한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카페호두는 당시 개관 기념으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했다. 모르고 갔는데 다 같이 좋은 기회를 누렸다. 근데 이곳 호두 사랑이 진심인 거 같았다. 천안 광덕 호두가 들어간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셔본 주민의 반응이 진실 했다. “아,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아니 그 비싼 광덕호두를 사용해 음료를 만들어?’ 한잔 추가하고 싶었으나 다 먹을 엄두가 안 났다. 호두 음료의 주인 공이 한입 마셔보길 권했다. “음~ 진짜 고소하고 맛있네.” 견과류는 잘못 보관하면 금방 써든 냄새가 나는데 전혀 그런



카페호두

게 없고 신선한 향이 가득했다. 퀄리티를 추구하는 경영마인드 같았다. 질 좋은 제품을 취급하는 카페호두란 생각에 플러스 하나 추가했다.

카페는 한시적으로 모든 음료를 무료 제공한다고 했다. 오후… 좋은 거 알려주기 좋아하는 중년 아낙의 정보 제공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맛있고 질 좋은 음료를 공짜로 준다고? 게다가 실력 있는 중견작가들의 작품도 보고? 이 좋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최근엔 천안사랑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해졌다. 요즘은 광덕 호두 공급이 어려워 일반 호두를 사용하는 거로 안다. 광덕 호두가 좀 비싸야 말이지.

암튼 이건 정말이지 천성이다.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 걸 어찌겠나… 마구마구 알려주고 싶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알려주지 않는다. 나름 진짜 괜찮다 싶은 것만 선별 한다. 아줌마라서 그렇다는 편견은 벼려주길. 암튼 카톡에 카페호두 정보를, 아니 뮤지엄호두 정보를 바리바리 전했다. 이른바 예술을 사랑하고 주변인들이 알려주는 정보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언니야들’의 화답이 왔다. 반색하며 꼭 와보겠다는 거다. 광덕이 천안이지만 제법 멀게 느껴지는 거리기에 마음먹고 오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많이 들 다녀갔다. 그렇게 좋은 미술관이 생긴 걸 알려줘서 고맙고 그렇게 멋진 카페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는 거다.

이거 웬지 정보 한 줄 제공으로 착하게 산 거 같다. 뭐든

알려주면 그 자체로 고맙게 여기는 착한 사람들. 내가 그런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과 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늘 느끼지만 이 언니아들의 말은 정말 거짓 칭찬 같지 않다. 그들의 응원을 들으면 힘이 난달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카페 호두에 빵이 꽤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민국 제과기능장 1호 임영래 기술고문이 만든 빵이란다. 빵 진열대가 제법 자리를 차지한 사진을 발견했다. 소박한 모드를 좋아하는 나는 개관 시 단출한 풍경이 오히려 좋았는데.

지난해 말 천안창작촌은 11기 입주작가를 모집했다. 입주작가는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는데 매년 모집해도 격년으로 입주할 작가를 모집하는 거라 상관이 없다. 조건 중의 하나는 입주 기간 중 50% 이상 실제 사용해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실제 사용하길 권장하는 무상작업공간이니 작가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싶을까.

올해도 변함없이 입주작가를 모집할 것이다. 천안창작촌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업가가 차린 레지던시다. 외지인이 이곳에서 예술 사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지역 재력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지역 재력 있는 사업가들은 왜 한 번도 레지던시 만들 생각은 안 했냔 말이다. 좋은 일 하고 싶다고

하고 예술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갖고 있으면서 말이다. 아쉬워서 하는 얘기다. 결국 예술에 관심 있고 대가 없이 작가들을 키워주고 싶은 독지가들이 우리나라 예술가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수문 대표가 천안에 땅을 사고 레지던시를 만들었다. 땅은 그의 소유일지 몰라도 레지던시는 작가들의 자유로운 작업공간이다. 그 창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뮤지엄호두까지. 천안창작촌은 예술가들을 위해 다양한 창작의 동인을 주고 있었다. 지역주민들과 지나는 관광객도 맘 편히 관람할 미술관이 있어 좋다. 번잡하지 않게 은은하게 쉬어갈 수 있는 카페호두가 있어 좋다. 천안에서 색다른 느낌의 미술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뮤지엄호두와 천안창작촌이 지역주민과 함께 가길 바라면서 상생 의지를 표현하고 노력한다면, 천안발전에 외지인이 기여한다면 외지인의 천안 진출을 적극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예술후원인이 더 많이 천안에 나타나길 바란다. 광덕 주민들의 예술 문화생활 향상에도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천안 최초, 천안 유일 레지던시 미술관이 바로 광덕에 있으니까 말이다.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길풍경

글_ 이정우
천안문학관 관장



글

이
정
우

연탄, 한때 뜨거웠던 기억

연탄을 실은 트럭이 굽은 오르막을 달린다. 푸른 용달차 한쪽에 상호도 없이 전화번호만 큼직하게 적혀 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세 개의 바퀴로 기우뚱거리는 삼륜 연탄 차는 아니지만 시커먼 숯검정을 묻힌 낡은 트럭이 낯설지가 않다.

아, 아직도 연탄을 때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린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과 비싼 기름값을 감당 못해 온실 유지를 위해 다시 연탄보일러를 놓았다는 농가들과 낭만과 향수를 자극하려 연탄구이집을 운영한다는 일부 가겟집들과 올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봉사를 하는 단체들의 훈훈한 소식도 들었다.

그리고 보니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천안 도심 한복판에도 연탄 공장이 있었다. 천안역 인근 대홍동, 그러니까 지금의 화정빌딩 맞은 편에 천안연탄공장이 크게 자리했었다. 또 아산으로 향하는 길목, 소위 온양나드리 서쪽 와촌동 대로변에 도 연탄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부분 집들이, 심지어 아파트 난방 구조도 연탄보일러를 채택할 때이니 연탄 수요가 제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시절이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와 도시가스 확대 정책에 밀려, 2천년대 들어서기 전에 모두 문을 닫았다. 시대를 이겨낼 수는 없었나 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 외곽 직산지역에 삼천리 연탄 공장은 시내 공장들이 문을 닫는데도 돌고 있었다. 그곳은 어느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극한 직업의 세계에도 등장하곤 했었는데, 생활 환경이 바뀌고 수요가 급락하니 결국 사양길을 이기지 못해 몇 년 버티지 못하더니 결국 폐업 절차를 밟고 말았다. 이제 전국의 연탄 공장도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연탄 같은 것은 옛 이야기와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겠다.

저 트럭은 어디서 연탄을 가져오는 것일까. 천안 연탄 공장도, 삼천리 연탄 공장도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상가와 공장 건물이 들어섰기에 천안 인근 그 어느 곳에서도 연탄을 찍어낼 만한 곳은 없기에 의아했다. 아마도 외지에서 주문한 연탄을 따로 적재하는 곳이 있을 듯했다.

트럭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해보기로 한다. 전화를 받는

분의 목소리에 잔뜩 기운이 빠져 있다. 분명 난방 연탄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자선단체와도 상관없으며, 연탄의 역사나 공장 이야기를 들으려는 글쟁이니 덥석 반길 일이 아닌 것은 당연하리라.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연탄 구입 경로와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번듯한 창고를 얻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으니 임대료가 싼 야적장에 부려놓고 한시적으로 판매와 배달을 한다는 거다. 서울 동대문 언저리, 이문동에 삼천리 연탄 공장이 아직도 돌고 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그쪽에서 들으란다. 그러면서 훌쩍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16만 가구가 넘는다고, 2020년 들어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서민용 연탄 가격은 결코 서민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22공탄(연탄의 구명수)은 역사 속으로 곧 사라진다고…, 자신의 견해를 섞어 탄식조로 전한다.

평생을 해오던 일이라 선뜻 손을 놓지 못한다는 전화 속 목소리에 솟구침이 범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통화를 끝마친 후, 부랴부랴 인터넷을 살핀다. 아뿔싸, 60년 역사의 고명산업 연탄공장이 폐업하면서 서울에는 삼천리 연탄 공장만이 남게 됐다는데 얼마전 발행된 신문 이곳저곳 기사들에서 이곳마저 곧 폐업을 한다는 기사를 접한다.

한때 연탄은 쌀과 함께 생필품 중 유품으로 여겨지면서 부



유함의 상징이었다. 서민과 애환을 함께한 ‘국민 연료’였던 이 연탄을 만들던 공장만 하더라도 1960년대 전국에 400여 곳에 달했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은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짓고 살림을 하던 때였기에 연탄의 출현은 그야말로 신식 문화의 상징이고, 선진문화생활의 척도였다.

그즈음, 아버지는 방학만 되면 흑성산 넘어 고향인 목천 큰아버지 집으로 우리 남매를 보냈다. 그때마다 우리는 20

여 리 길을 걸어서 큰집으로 향했다. 삼거리를 지나고, 응원리 고갯길 넘어 신계리 끝자락에 달린 송말에 들어서면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밥 짓는 냄새가 한가득이다. 누나와 난 목천에서 반나절 거리인 병천 외갓집까지 다녀오곤 했는데, 늘 재미있는 건 부뚜막 아래 아궁이의 모습이었다. 천안 시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겨운 모습이었다.

집집마다 뺄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때, 연탄을 때던 신식아궁이가 큰집의 거친 아궁이에 비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그때 깨달았었다. 아궁이 속으로 장작을 넣고, 추수가 끝난 짚 더미나 말린 풀을 일컫던 북데기 같은 것을 때서 밥을 짓는 불편함이 아님을 말이다. 불꽃 앞에서 불쏘시개를 계속 밀어 넣지 않아도 되는 연탄불이 참으로 편리한 문명 세계라는 걸 그때 안 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레일식 연탄 화덕은 구들장 아래와 부뚜막 사이를 오고 가면서 용도에 따라 그 쓰임을 달리하니 말이다. 매캐한 불 향이 배인 하얀 쌀밥과 벌겋게 달궈져 있던 삼발이 위로 석쇠를 올려 노릇하게 구워주던 꽁치구이 맛을 잊지 못한다.

어느새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은 연탄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삼촌도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으니 그리운 기억들만 발목을 잡는다.

그러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즈음 목천 큰집도 병천 외갓집도 변화를 맞았다. 전기가 들어오더니 마침내 연탄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집계로 퍼즐을 맞추듯 위아래 탄 구멍을

잘 맞추어 놓으면 방바닥에서 따스하게 온기가 올라왔다. 연탄값이야 들었겠지만 창고나 부엌 귀퉁이나 화장실 한쪽에 캄캄한 연탄성을 쌓아놓은 어른들은 포만감에 든든했고, 산으로 들로 겨울 땔감을 구해와야 했던 걱정도 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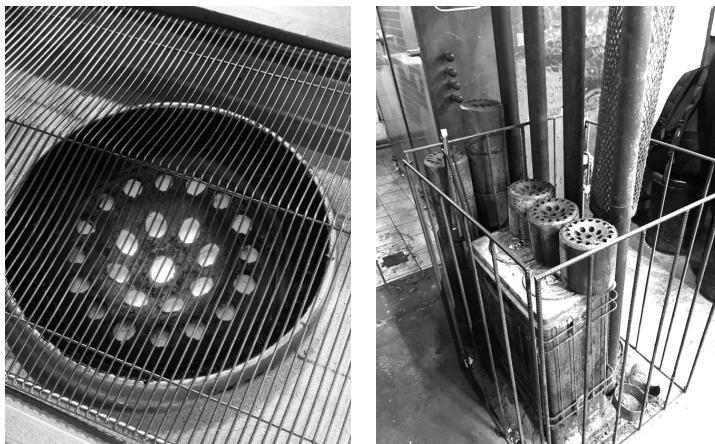
무쇠 연탄 덮개와 커다란 고무 물통을 호스로 연결하면 물이 따뜻해졌으니 가마솥에 물을 데우는 번거로움도 줄게 되었다. 무엇보다 문방구 앞 연탄 화덕에 국자를 올려놓고 설탕이 녹아드는 것을 흐뭇이 바라보던 일은 얼마나 짜릿했는가. 소다 가루를 섞으면 설탕물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고 굳어진 달고나를 입속에 넣으면 파삭하게 깨지면서 온몸에 펴지던 달디단 맛들. 그러나 누구네 집 아무개가 연탄가스를 마셔 쓰러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오금이 저리도록 아찔한 건 어쩔 수 없었다.

타버린 연탄재는 길 웅덩이나 얼음 언 마당에 던져 미끄럼을 막았는데, 개구진 사내아이들은 마치 눈 뭉치를 던지듯 골목에서 연탄재 싸움을 하며 놀이를 대신했다. 집마다 골목마다 온몸을 불사르고 벼려진 연탄재들이 둉굴거나 구석에서 암전히 한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 삶이라고 한 유명 시구도 있지만, 어느 시인의 눈에는 부처로 비쳐 ‘소신공양한 부처 몇 분이 골목 어귀에 나앉아 있다, 부도처럼’이라 했으니 물상을 읽는 힘이 놀랍기만 하다. 온몸을 깡그리 태우는 일, 그렇게 소신공양한다면 부처 아닌 것이 있으랴.

한때 뜨거웠던, 심장에 피돌기를 일으키던 그 무엇을 기억 한다. 뜨거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를 세월이 지나고서야 깨닫는다. 광부들의 목숨이 담겨 있는 연탄 한 장으로 냉골이 데워지고, 꽈하게 불을 지핀 장작이 언 손을 녹이듯 내가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온기를 나눌 수 없다. 하루해가 불덩이를 안고 스러져야 별들도 빛을 내고, 겨우내 힘을 기울인 나무가 화르르 봄꽃을 피워올릴 것이며,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글쓰기가 걸작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자신을 데운다는 것, 그리고 뜨거워진다는 것, 마침내 태워버린다는 것은 용기와 희생과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이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 안도현 「반쯤 깨진 연탄」 일부



목숨 걸고 해보리라는 집념을 가지면 실패도 두렵지 않을 것이니 어기적거리는 일이 있다면 매운 연기만 내지 말고 결단과 용기로 불을 땅겨볼 일이다.

번개탄도 나오지 않던 시절, 이웃에 불을 얻으러 다니던 때가 있었다. 붉은 연탄을 빌려와 어떻게든 다시 불씨를 살려내었다. 그때의 연탄은 무조건 생존이었으니. 어느새 연탄을 쓰던 부엌도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가스 불꽃 이는 주방이 되었고, 그 주방은 다시 오븐과 인덕션을 쓰는 키친이 되었으니, 옛날 옛적 호랑이가 팔죽 먹던 시절의 장작불을 지피던 선조들이나 연탄불과 곤로불을 쓰시던 부모님께서 하루 쯤 저세상에서 휴가받아 오늘 우리네 집에 머문다고 가정해 보자. 천지개벽한 주방에서 최첨단 불꽃을 피우지 못해 황망

하게도 쫄쫄 굶고 가실지도 모르겠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서 서서히 떠나가는 연탄, 서릿말 고갯마루를, 성황댕이 골목골목을, 하릿벌 미랑골 한들 그 너른 들판을, 원거리 유랑골 넷가 따라 사람 사는 동네를 찾 아가던 연탄 차가 그립다. 그 위에 올라앉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둘러보며 연탄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미련한 인간들에게 속검정으로 불꽃으로 빈 재로써 침묵의 말을 던 졌으나 나는 오늘에서야 겨우 한마디 알아듣는다.

“너도 한 장의 연탄이다.”

글

이
정
우

시간의 뜻음

시간의 자락이 제 뜻을 다하고 돌아선 모양이다. 며칠 사이 밤바람이 서늘하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의 마디, 그것을 절기라 한다지. 사람들은 온도와 바람에 따라 시간을 나누고 하늘과 나무의 색이 변하는 시기를 계절로 묶었다. 곡식을 기르고 거두는 때를 기倨키 위해 만들었다는 절기는 언제나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때가 되니 이글거리던 태양도 위세를 떨구지 않나. 그래서 시간을 끓어 낸 사람들의 능력은 위대한가?

여름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이때 내게 다가온 추억은 너무

뜬금없이 놀랍다.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이 순식간에 몰려와 내 머리를 채우던 순간은 내게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되리라.

중학교 2학년의 설렘 가득한 여름과 스물한 살의 뜨거웠던 여름이 한 화면에 동시에 떠오른 것은 폐허로 방치된 대흥동 충남고물상 옆, 그러니까 예전 천안 연필공장을 지나면서였다. 그날은 좀 이른 약속을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약속을 위해 서두른 때문인지 시간보다 일찍 문학관에 당도했다.

안개가 도심을 삼키고 있었다. 하늘은 짙은 안개에 잠겨 뚜렷하지 않았다. 천안역 에듀시티 고층아파트만이 안개 사이로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건물들과 하늘을 모두 덮은 안개의 웅장함에 이끌려 서서히 핸들을 틀었다. 간이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안개는 벚나무 가지 사이를 빠져나와 아스팔트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연필공장 담벼락을 따라 출지어 서 있던 중학교 2학년의 나와, 천안역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스물한 살의 내가 순식간에 머리를 채웠다.

차의 비상등을 켜고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은 그들 2명의 내가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3학년 까지 입어야 한다며 몸보다 한참은 큰 교복의 앳된 나와 그런 나에게 시험 때마다 메모장을 건네던 대호와 형의 옷을 물려 입은 진엽의 스포츠머리까지 오늘인 듯 선명했다.

천안에 처음으로 시내버스라는 이름이 낯설게 다가서던 무렵, 봉명동에서 천안역 가는 버스를 탄 우리는 대홍동이 다가오기를 기다라며 쉼 없이 수다를 떨었다. 시가지를 가로 지르는 철길 때문에 시 외곽을 한 바퀴 돌아야 당도할 수 있었던 때, 모두가 처음 타본다던 시내버스. 우리는 병막, 차 돌고개, 소전거리, 남산공원, 온양나드리 같은 이름들을 손으로 헤면서 대홍동을 기다렸다.

버스는 우리의 수다가 멎을 즈음 대홍동 천안역 앞에 도착했고 우리는 상큼하게 정돈된 역전 쇼윈도의 화려함을 눈에 담았다. 기와와 스파게티, 함석지붕의 집들만 보아왔던 우리들에게 삼도상가, 미도아파트는 거대한 도시처럼 보였다. 천안에 이런 데도 있나! 대호의 커다란 눈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알록달록 예쁜 아파트 건물들을 지나자 연탄공장이 나타났다.

“너네 아버지 아직 안 오셨지?” 진엽이 걱정스럽게 묻는 동안 나는 현실적인 걱정에 빠졌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자신 있게 연필공장 안을 구경시켜 주겠다 약속했었는데…, 혹여 공장 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닌지. 열려 있다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야, 문이 열려있다. 공장 돌아가는 소리도 나는데.” 대호의 외침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마음 속 수심이 사라지면서 활짝 갠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동아 연필공장’ 간판 옆으로 난 쪽문을 밀고 당당하게 들어선 우리, 연필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에 그만 입들이 벌

어지고 말았다. 우리 모드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이었다. 은은한 나무 냄새와 함께 온몸을 감싸던 서늘한 기름 냄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촉이었다. 그러나 난 그 기억마저도 잊은 채 긴 세월을 보냈다.

공장을 둘러보고 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에도 앉아보고 만들어진 연필도 만져보고…, 주머니 가득가득 연필을 집어 넣고는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는다. 버스를 탔는지, 아니면 걸어왔는지. 아마도 영원히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날의 햇살과 나무 냄새, 그리고 낯선 이름들을 그렇게나 잊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그리고 온통 신기함에 동그랗게 눈을 뜨고 바쁘게 벨트를 쪘던 소년들과 네온사인 현란한 밤의 대홍동 골목을 걷고 있는 스물한 살의 내가 한 화면에 반으로 나뉜 두 개의 영상처럼 떠올랐다.

아스팔트를 울리는 구두 발굽은 쉽게 적응되지 않았다. 발가락이 얼얼하고 뒤꿈치가 옥신거렸지만 무릎을 펴고 허리를 곧추세웠다. 밤의 대홍동 골목을 걷는 청년들은 모두 그래야 했다. 세상 어떤 짚음도 우리의 짚음과 아름다움을 이길 수 없었다. 스스로가 주인공이었기에 세상 잘난 사람들을 몰랐던 그때의 당돌함은 밤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천안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우고 흑성산을 넘어오는 해를 보리라 다짐했던 것은 고등학생 때였다. 암울하고 우울한 시

간이 흐르고 나면 찬란한 성인의 시간이 시작되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현실은 학원가를 전전하며 입시를 걱정하는 신세였다. 그러나 내겐 친구들이 있었다. 친구들은 시간만 나면 모였다. 대호네 집에서 밤도 새우고 진엽네 집에서 아침을 먹고 대홍동 퍼모스트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맥주도 마시고 당구장도 기웃거리고 당당하게 영화관을 들어서게 되자 아주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세 명의 청년들은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하리라 자신하면서. 스쳐 지나는 여학생들의 힐끗거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도도한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차갑고 냉정한 아름다움을 뽐내던 우리는 그렇게 대홍동 명동 골목을 누볐다. 바람은 한없이 상쾌했고 우리의 젊음은 끝없이 아름다웠다.

누군가는 시간의 묶음이 된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영원히 떠올리지 못한 채 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만든 시간의 묶음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떠올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되새기는 지금의 나는 편안하고 행복했다.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낚싯대가 있다면 그 끝엔 분명 갑자기 나, 뜬금없음이라는 미끼가 걸려 있을 것이다.

글

이
정
우

민촌 이기영과 천안



천안이 낳은 불세출의 작가 민촌(民村) 이기영(李箕永)의 흔적을 찾는 일은 이제 어려워졌다. 그가 남긴 문학적 흔적은 상당했지만 그가 남긴 향토적 유산은 너무나 소루하기 때문이다.

천안은 민촌의 고향이다. 그가 자라고 문학적 심상을 가다듬었던 유량동과 안서동 일대 그의 흔적들은 한동안 언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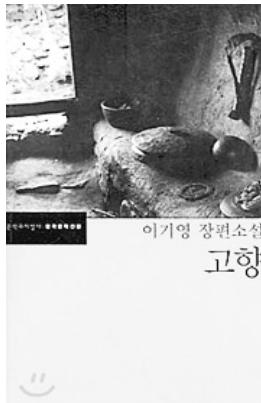
언저리마다에 남아 있었고, 그의 흔적을 기억하는 몇몇 어른들도 자리했었지만 개발이라는 도시화의 바람 앞에서 희미하던 그의 흔적들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구전으로만 떠도는 몇몇 이야기들이 남아 그를 기리고, 추모하는 문인들 몇몇의 발길만을 쓸쓸하게 할 뿐이다.

한국 경향소설의 대표 작가 민촌 이기영. 그의 문학적 성과가 그 분야 여타 작가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붙는 수식이다. 특히 「고향」, 「두만강」등을 포함한 그의 문학적 성과는 당시 반봉건 사회현실을 밀도 있게 구현해 냈고, 프로 문학의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920~30년대 우리 문학사의 한 축이 됐던 카프(KAPP·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좌장이자 해방 이후 북한 문학의 대표 작가로 꼽히면서 우리에게서 멀게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가리워지고 잊혀진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광수 염상섭 채만식에 결코 뒤지지 않는 무게를 지닌 작가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아마 조선의 농촌묘사는 민촌의 「고향」에 이르러 극치를 보여준 것 같다. 금후의 조선 소설의 수준은 이 「고향」을 뛰어넘기에 노력할 것이라 한다.”

– 「삼천리」 제8권 1호, 1936년 1월호 김태준 ‘소설강좌’ 中 –



“민촌의 「고향」은 조선의 신문학운동이 발달한 이후에 처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그리고 조선문화사에 기록을 그어놓은 작품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어 했던 것이요, 지금에 있어 단언해 두기에 양심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바이다.”

– 「백광」3~6호, 1937년 2~5월 민병희 ‘고향론’ 中 –

“민촌의 「고향」은 노신의 ‘고향’ 이상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 「풍림」제6집, 1937년 5월 박승극 ‘이기영 검토’ 中 –

민촌 이기영의 소설 「고향」에 대한 당시 문단의 찬사들이다.

민촌은 당대 최고의 인사들과 끊임없이 교류했고, 문학계의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이기영에게 ‘민촌’이라는 아호를 지어준 것은 벽초 홍명희였고, 춘원 이광수와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다. 이광수가 ‘혁명가의 아내’에서 마르크스

주의자를 색골로 그리자 ‘변절자의 아내’라는 소설을 써 맞서기도 했다. 친일과 항일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등 이광수와는 다른 길을 걸었던 시대의 인물이었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하에서 현실 반영의 시각이 남다르던 민촌은 천안이 고향이다. 그의 장편소설 「고향」은 1933년 11월부터 1934년 9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면서 농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천안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근대화 과정의 과도기를 여과 없이 표출하였다. 또한 보수적 집단과 개화적 사고를 지닌 세력 간의 갈등 양상과 계절별로 나타나는 농촌 현황 및 각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근대화 과정 속 천안의 외형적인 변화의 모습뿐만 아니라 풍속이나 관습들도 같이 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대치시키면서 그 장단점까지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문학계에서는 공동 노동의 재현 장면과 혹은, 소박하나마 자유스럽고 공평한 농촌 공동체의 이상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왜곡되는 현실에 어찌지 못하고 체념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눈 뜨는 성장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불던 당시 농촌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사회주의적 해결책

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향」은 청년 지식인들의 고뇌를 주로 문제 삼았던 직전의 소설들과는 달리 하층민의 삶을 탐구,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계몽성의 요체가 시혜적 농민계몽이 아니라 계몽자가 농민과 마찬가지 처지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함께 탐색해 나가는 실천의 과정임을 그렸다는 점과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삶을 깊이 탐구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 등에서 농민문학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 이무영의 〈모범경작생〉 등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기영은 그의 고향을 언급할 때면 천안을 떠올렸다. 1937년 월간지 〈조광〉 5월호에서 이기영은 “출생지는 아산이지만 두세 살에 떠났기 때문에 천안을 고향으로 여긴다”고 적고 있다.

천안에서 성장기를 보내던 시절 이기영의 삶은 빈곤했다. 그의 호가 민촌(民村)인 까닭도 당시 곤궁한 삶을 벗지 못했던 천안의 유량동 일대 마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천안 시절의 경험은 북에서 쓴 장편소설 〈두만강〉에서도 고스란히 배어난다.

이렇게 깊은 천안과의 인연 탓일까? 1997년 편찬된 〈천안시지〉는 이기영을 “천안이 낳은 대문호”로 치칭하고 있다. 그러나 대문호라는 수식이 무색하게 그와 관련된 기록이나



'고향'의 무대인 천안시 유량동 향교말 근처 민촌이 살았던 집.
지금은 훼철되어 없어졌다.

유적은 천안에서 방치되고 말았다.

그의 고택이 얼마 전까지 유량동 향교말 작은 언덕배기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서 있었지만 누구하나 관심을 두지 않더
니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움에 몸 둘 바 모르겠지
만 이제라도 그의 생가 복원뿐 아니라 문학관 건립, 아니면
조그마한 문학 비라도 그곳에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
히 문화의 보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함이 천
안의 문화적 정서를 간직해 가는 정체성을 간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활자 매체를 통해 이기영 문학세계 조명을 해오면서, 향후
'민촌 문학상' 제정을 구상하고 있는 천안문협에서 천안예총
과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일들을 구상하고는 있지

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변적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쉽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련의 이러한 일들과 과정들은 민촌이 지니는 문학적, 예술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것이다. 다만, 겨우 그의 이름 석자를 빌려 ‘민촌백일장’을 개최해 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촌이 비록 월북 작가로서 한 시대 그늘에 가려 빛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상이나 인생행로가 아니라 그의 문학적 가치를 살펴 조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의 생가 복원 운운하는 것은 단순히 보존을 넘어서서 그 공간이 살아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있어 근·현대 역사적 산실로 의미를 주자는 것이다.

〈유화 한 점 없는 ‘박수근 미술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강원도 양구군에 개관된 박수근 미술관의 현실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고가의 그림을 소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의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미술관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얼마만큼 박수근을 기념하고 있고, 그의 미술세계를 효과적으로 잘 간직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천경자화백의 고향 고흥에서의 전시관 설치 무

산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일회적 행사를 위한 소모적인 일, 그리고 경쟁하듯 한 문화운동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우리 곳곳에서 과거의 문화유산만을 자랑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실 진정한 문화적 주제와 그 가치를 드러내는 점에 있어서는 고개를 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이 형편없이 구겨지고 만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에 문학적 자원을 향토애로 끌어올리고, 한편으로는 관광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규모 있게, 격이 있게 꾸민 문학관들이 국내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누상동의 ‘윤동주 하숙집’, 부암동의 ‘현진건 집필실’, 통인동의 ‘이상 생가’ 등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그 원형을 찾을 수 없고, 쓸쓸히 방치되어 결국 버려지





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비단 이러한 일은 남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우리 고장 천안을 살펴보자. 민촌 이기영 선생의 경우 그의 생가와 안서동에 있었다는 그의 집필처 등도 같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우리 문화의 현주소이다. 누가 누구에게 탓을 돌릴 것인가. 비단 이 일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현대 천안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 평생을 바쳐 독립 운동에 매달렸던 숱한 항일투사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독립 운동의生生한 현장들도, 거리문화의 상징인 천안삼거리 본래의 정취도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 국난극복의 상징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 사당 건립 등도 그러하다.

천안의 자랑스러운 문화적 인물들과 사건들을 향한 기념적인 운동이 천안문화의 정신적 지표를 세운다는 목표아래 추진될 때 그 의미가 배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때 지역문화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확립된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없는 민족에게 일시적인 물질적 풍요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광복 70년과 분단 60년을 맞은 올해, 비운의 역사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잊혀진 작가였던 민촌 이기영이 재조명, 재평가될 수 있을까? 어쩌면 또 다른 역사쓰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글
이
정
우

도시재생 시대! 원도심의 도전

고속열차가 서는 천안아산역과 일반 열차가 오가는 천안역은 6km 남짓 떨어져 있다. 멀지 않은 거리. 그러나 두 기차역 주변의 ‘세월 격차’는 30년은 됨직하다. 천안아산역 주변에 즐비한 고층 아파트와 신축 빌딩의 행렬은 천안역이 가까워지면서 말끔히 사라진다. 대신 낡은 저층 건물과 드문드문 빈 점포가 눈에 들어온다. ‘폐업정리 SALE 90~70%’ 현수막을 내건 점포가 이곳저곳 눈에 들어온다.

대도시의 기본 요건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다. ‘사통팔달’ 천안은 2024년 현재 70만 명에 다달아 전국 도시 20위권 안

에 드는 충남 유일의 도시로 이제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천안의 원도심인 천안역 일대(천안 동남구 중앙동 · 문화동)는 천안이 팽창하는 동안 반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북부 · 불당 · 쌍용 · 청수지구 등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도심 기능이 원도심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해 간 탓이 크다. 2005년 시청을 시작으로 2008년 교육청이, 2010년엔 세무서가, 2017년엔 법원과 검찰청이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특히 2004년 불당동지역으로 천안아산역이 개통하면서 기존 천안역 중심의 교통 구심점 역할도 약해졌다. 천안 인구가 31만여 명이던 1990년에서 70만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2020년 사이 원도심 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했다. 3만 5천여 명이 살던 원도심에 이제는 1만여 명만 거주한다니 말이다.

스타벅스가 비켜 가는 동네

그러나 최근들어 천안 원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지고 있다. 옛 시청 부지에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44층짜리 아파트 3개 동이 지어졌다. 이 고층 아파트는 저층 상가건물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뚝 솟아올라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다.

물론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천안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도시를 재생한다면서 옛 건물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공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천안 원도심. 공공시설과 함께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옛 시청(현 동남구청) 부지와
낙후된 상업 지구가 마주 보고 있다. (2017년 모습)

했었다. 하지만 천안 원도심은 왜 고층 아파트를 택했을까. 도시재생이 한창이던 2017년 천안시 도시재생과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천안역 주변은 일반 상가와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이 밀집한 상업 지구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쇠퇴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이를 타개하고자 이 지역에 새로운 주거 시설을 공급해 정주(定住) 인구를 늘리려는 겁니다.”

KTX · SRT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열차가 천안역에 정차한 뒤 전국으로 뻗어나가지만, 교통 요충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천안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외부 인구가 미미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천안점이 원도심 내에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한적한 영화관’으로 명성(?)이 높다.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나머지 임대 공간은 비어 있은 지 오래라고도 한다. ‘상권의 바로미터’로 통



하는 스타벅스 매장이 천안에 10여 개 있는데, 모두 원도심을 비켜간 곳에 위치한다.

노후 건물을 고쳐 쓰는 것만이 꼭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주거지역 도시재생이라면 기존에 있던 빈집을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천안 원도심과 같이 애초에 주거시설이 없던 상업지역은 거주자를 늘릴 목적으로 새로운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거주자가 늘고, 그래야 주변 상권이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옛 동남구청 부지에 지은 ‘힐스테이트천안’이 한 예로 볼 수 있다. 새 동남구청사와 대학생 기숙사인 ‘행복기 숙사’, 어린이회관 등 공공시설도 함께 지어졌다. 지식산업 센터를 거쳐 지금은 ‘천안문화관’으로 리모델링되고 있는 문화공간과,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박물관,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천안시 측은 이들 시설로 원도심에 2천여 명의 상주인구가 새로 생기고, 하루 4천여 명의 유동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1932년 준공된 옛 동남구청사는 2005년까지 천안시청 청사로 쓰였다. 이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재개발 논의는 천안시 청의 신도심 이전이 확정된 2003년 무렵 개시됐다. 천안시는 아파트, 오피스, 상가 등이 포함된 복합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자 유치는 번번이 실패했다. 천안시 공무원들은 민간 디벨로퍼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줘도 안 갖는 땅’이라는 말을 듣곤 했다고 한다.

결국 옛 시청사 재개발 사업은 10년가량 공회전하다, 2015년 정부가 노후·방치된 공공부지를 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하에 재활용하는 정책을 펴면서 물꼬가 트였다.

청년창업가 유입…달라진 원도심

그러나 천안 원도심의 도시재생 속도는 여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느린 편이다. 천안시는 도시재생 관련 논의와 준비를 마치고 2017년에야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다. 7년이 지난 현재, 천안 원도심은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다.



우선 ‘전에 없던’ 청년 상인과 창업가들이 눈에 띈다.

20,30대 청년들이 카페, 퍼브(pub), 애견미용숍, 패션 편집 매장 등을 원도심에 열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동원해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고제작업체 ‘스터미디어’, 3D프린터 및 코딩 교육업체 ‘3D ATO’ 등 여러 업체가 성업하고 있다. ‘홍홍발전소’라는 이름을 붙인 이 건물에는 10여 개 청년 점포가 입주해 있다. 한편 오래 방치됐던 옛 쇼핑센터를 천안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도시창조드림센터’는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터줏대감이라 할 기존 상인들과 청년들 간 협업 관계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기존 상인과 청년 간 갈등이 없지 않았지

만, 천안 원도심 숨바꼭질 축제가 크게 성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됐다. 천안시는 새로운 원도심 축제를 주최하면서 기획과 운영을 청년들에게 맡겼다. 숨바꼭질 게임과 물총놀이, 공연, 영화제 등이 마련된 축제는 대성황을 이뤘다.

법정 문화도시 천안을 품격있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한다. 삼거리 길목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고 진정 천안을 천안답게 만들려는 천안 원도심의 ‘도전’이 성공하길 빈다.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길풍경

글_ 윤평호
대전일보 부장



열정으로 탄생한 천안명소 탐방길

도시는 생명체다. 생장과 소멸의 운명을 지닌다. 찬란했던 번영의 순간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흔적도 없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은 도시가 숱하다. 반면 현대의 세계적 도시들은 주변 지역까지 블랙홀처럼 흡수하며 메트로폴리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지역의 크기나 인구 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화양연화의 시절을 뒤로 한 오래된 도시가 풍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방문자들을 불어 모으는가 하면 젊은 창업자들의 생동하는 아이디어가 꿀과 젖처럼 흐르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는, 그곳에 깃들어 살아가는 이들의,



아라리오 조각광장 모습. 아라리오 제공

열정의 소산이다. 그런 열정가들의 실패와 성공이 응축된 공간이 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명소가 되고, 궁극에 역사가 된다. 천안은 그에 부합하는 명소가 어디일까? 그래서 떠났다. “열정으로 탄생한 천안명소 탐방길”

문화도시 천안의 품격 ‘아라리오 조각 광장’과 김창일

천안의 도시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 가운데 ‘문화도시’가 있다. 천안과 문화도시라는 생경한 두 단어가 일체화된 공간, 그래서 문화도시 천안의 대표 이미지로 가장 맞춤한 장소, 바로 ‘아라리오 조각광장’이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과 천안종합터미널 일대에 조성된 아라리오 조각광장은 ‘현대미술의 성지’라고도 불린다.

용도를 다한 자동차의 차축 999개를 텁쳐럼 쌓아 올린 아

르망 페르난데스의 작품 ‘수백만 마일–머나먼 여정’, 어린이 용 해부학 세트 모형을 확대한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찬가’, 아기를 모티브로 만들어 좌·우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도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키스 해링의 작품 ‘무제(피규어 온 베이비)’, 인도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수천 개의 현 놋그릇으로 핵폭탄의 위력을 상징하는 버섯구름을 형상화한 수보드 굽타의 ‘통제선’, 높이 15m, 무게 약 27톤으로 설치부터 제작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린 일본 작가 코헤이 나와의 작품 ‘매니폴드’, 사람인 듯 하나 얼굴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윤곽선을 지닌 김인배의 조각상 ‘사랑해’, 18m의 바늘모양 스테인레스 기둥에 원색의 꽃송이 7개를 부착시킨 최정화의 작품 ‘꽃의 마음’, 고철 조각들로 말을 탄 돈키호테의 꼬장꼬장한 풍모를 빚어낸 성동훈의 작품 ‘무식한 소–돈 키호테’,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를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으로 풀어낸 브래드 하우의 작품 ‘빗 속의 댄스’, 인간과 물질 등을 주제로 존재의 관계적 사유를 떠 올리게 하는 노부코 와타나베의 작품 ‘블루 앤드 화이트, 화이트 앤드 레드’ 등 아라리오 조각광장은 울타리 없는 현대 미술의 향연장으로 손색이 없다.

아라리오 조각광장은 올해 또 한번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으로 아라리오 조각광장의 미술품에 미디어아트가 더해졌다. 지난 10월 4일 개막 해 13일까지 열흘간 아라리오 조각광장에서 ‘천안라이트 in ARARIO’ 야간관광 행사가 펼쳐졌다. 매니폴드, 수백만마일



(주)아라리오 창업주 김창일

등 아라리오 조각광장에 설치된 예술작품과 연계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아라리오 조각광장의 탄생은 (주)아라리오의 김창일 창업주와 따로 떼 놓고 설명 할 수 없다. 아라리오 조각 광장 자체가 김창일 창업주의 문화예술경영 철학에서 태동했다. 김창일 창업주의 회사 소개서에서 “바쁜 일상에 쫓겨 정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문화란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느티

나무 그늘과 같은 존재”라며 “아라리오는 고객에게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문화의 씨앗을 심고 가꿔온 기업”이라고 밝혔다. 실제 1986년 12월 10일 (주)아라리오산업으로 출발한 아라리오는 그동안 신세계와의 경영 제휴를 통해 충청의 자부심을 높힌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을 시작으로 컨템포러리 아트를 주제로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아라리오뮤지엄’과 ‘아라리오갤러리’,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인 충청남도 천안에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천안고속버스터미널’까지

사람들이 온전히 즐거울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기업명 ‘아라리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민요 아리랑에서 영감 받은 순우리말이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이름인 아라리오라는 기업명에는 고객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나누며, 협력과 창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담겼다.

김창일 창업주의 열정은 삭막한 도시 풍경을 바꾸고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들로 터미널과 백화점, 갤러리가 한데 어우러진 세계의 단 하나 뿐인 고유한 도시예술공간을 창출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기업가를 넘어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이자 씨 킴(CI KIM)이라는 이름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며 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에서는 씨 킴의 17번째 개인전이 내년 2월 9일까지 열린다. 여러 부캐를 오가는 그의 샘 솟는 열정의 원천은 무엇일까? 2015년 월간지 ‘코스모폴리탄’ 3월 호에 실린 그의 인터뷰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도 예술도 다 통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미술을 몰랐다면 사업도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버스 터미널 사업을 하던 사람은 저만 빼고 다 망했어요. 지역에 딱 하나 허가가 나오는데 뭐하러 머리를 쓰겠어요?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천안 버스 터미널을 물려받았을 때 사실 매달 3백만원이 적자였어요. 그때 제가 바꾼 것이 나무 매대를 알루미늄

새시로 새롭게 단장하고 상품을 디스플레이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설치미술과도 통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술은 생활이예요…그림을 시작하면서 ‘Life is Art, Art is Life’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 사업도 변창하고 지금은 이렇게 뮤지엄까지 만들고 나니 모든 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빵의 도시 천안의 품격 ‘빵돌가마마을’과 윤석호

군 복무 때 별명이 ‘호두과자’였다. 휴가나 외박으로 천안 고향집에 들렸다가 복귀할 때면 양손에 어김없이 호두과자 선물세트가 들려 있었다. 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제대가 임박한 무렵 부대에 신병 한 명이 배속됐다. 나와는 내무 반과 보직이 달라 특별히 대화할 계제가 없었지만 신병이 천안 출신이라는 말은 다른 병사를 통해 건네 들었다. 신병이 첫 외박 뒤 복귀하며 나처럼 호두과자를 사왔다는 말과 함께. 천안이 호두과자의 본고장이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호두과자 점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때는 일 등으로 외지분들을 만나면 천안의 유명 호두과자업소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유독 한 곳을 묻는 곳이 많다. ‘뚜쥬루’다. 뚜쥬루 (toujours)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는” 뜻의 프랑스 말이다. 뚜쥬루라고 하면 이따금 ‘뚜레쥬르’와 혀갈리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뚜쥬루를 뚜레쥬르의 모방 브랜드로 아는 분들도 있다. 오해다.

“많은 분들이 뚜쥬루를 뚜레쥬르로 착각하시거나 뚜레쥬르의 아류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

니다. 저희 뚜쥬루가 서울 용답동에 첫 매장을 오픈한 해는 1992년이고 뚜레쥬르가 첫 매장을 연 것은 그보다 5년 뒤인 1997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뚜레쥬르는 저희 뚜쥬루를 인수하겠다고 매각을 제의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뚜레쥬르가 뚜쥬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불허되었을 때 뚜쥬루는 뚜레쥬르의 요청으로 상생 협력 계약서를 체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뚜레쥬르 상표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뚜쥬루가 뚜레쥬르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호 뚜쥬루 대표의 설명이다.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단일 베이커리 매장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빵돌가마마을을 일군 뚜쥬루. ‘빵의 도시’ 천안의 방문 1번지 장소가 된 뚜쥬루는 대기업계열 베이커리 회사의 견제를 딛고 오늘에



윤석호 뚜쥬루 대표가 빵돌가마마을을 설명하고 있다

도달했다. 뚜쥬루는 1992년 서울 용답동에 처음 문을 열었다. 제조 당일에 판매하고 남은 빵을 다음날 50% 할인 판매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실천하며 제과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오픈 당시 1일 5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5년 후에는 1일 360만 원으로 뛰어 올랐다. 당시 서울 단일 점포 제과점 중 매출 순위 5위를 기록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형적인 등지 내몰림의 아픔을 톡톡히 겪으며 뚜쥬루는 점포를 비워줄 수 밖에 없었고 천안으로 터전을 옮기게 됐다. 용답동 점포를 넘겨주면서 파리바게뜨에서 권리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돌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뚜쥬루와 파리바게뜨의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대기업 체인 빵집이 동네 빵집의 영업점 500m 이내 진출을 금지시키는 이슈가 확산됐다.

뚜쥬루는 1998년 천안시 동남구에 성정점을 열며 ‘천안시대’를 개막했다. 성정점 부지의 매입 자금은 뚜쥬루 창업주인 윤석호 대표가 (주) 대우건설에 몸 담는 동안 1978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3년 동안 오지 근무를 하며 받은 해외 근무수당으로 마련했다.

성정점 이후 뚜쥬루는 2008년 불당동 거북이점에 이어 2012년 구룡동에 돌마가점을 오픈했다. 천연 화산석으로 만든 국내 1호 전용 빵돌가마를 보유한 구룡동 돌가마점은 오늘날 빵돌가마 마을의 출발이 됐다. 8300여 m^2 면적에 달하는 빵돌가마 마을은 국내 최초 빵돌가마를 중심으로 한 빵



뚜쥬류의 역사가 윤석호 대표의 빵 역사다.

전문관을 비롯해 케이크하우스, 천안쌀제분소, 빵장작가마, 어린이 베이커리, 먹는 꽃 허브하우스, 국내 최대 빵돌가마 2호 빵마을카페, 천안쌀케익23 등이 별도 건물로 들어섰다. 빵장작가마는 뚜쥬루의 슬로푸드 철학을 담아 참나무 장작을 태워 정통 방식 그대로의 신선한 빵을 매일 구워낸다. 어린이 베이커리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베이킹을 체험할 수 있다. 호빗마을을 닮은 이국적 풍경의 빵돌가마 마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빵 테마파크로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각지에서 모여든 빵지순례객들로 북적인다.

뚜쥬루는 지역과 상생협력에도 진심을 다한다. 팥과 쌀, 무농약딸기, 고구마와 밀 등을 천안의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에서 전량 공급받는다. 당일 생산한 빵만 판매, 식용유는 하루만 사용, 팥은 매일 직접 끓여 쓰는 등 뚜쥬루가 창업 이래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원칙들이다.

이런 노력들에 힘 입어 뚜쥬루는 지난해 연 매출 200억 원을 넘어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에 이어 전국 3위 빵집에 등극했다. 빵돌가마마을에는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개방하고 있다.

윤석호 대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그만큼 더 소요되지만 원가 절감 보다 사람 손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베이커리 점포들보다 뚜쥬루 근무 인력이 많은 것도 전 과정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소화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소비자들에게도 맛과 마음이 전달된다는 신념의 소유자다. 그래서 매장을 늘릴 때마다 독특한 건물을 디자인해 신축, 일 하는 사람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뚜쥬루의 어느 매장을 방문하든 투명한 유리창 너머 빵의 장인과 전문가들이 활력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뚜쥬루는 직원 복지를 위해 사택을 제공하며 매달 모든 인건비와 재료비를 모두 임직원에게 공개해 투명경영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빵과 제과 장인의 숙련된 손길, 투명경영의 3박자 속에 뚜쥬루의 인기상품이자 장수제품인 거북이 빵, 돌가마만주, 천안쌀케익 등이 탄생했다.

뚜쥬루는 광복의 달을 기념해 지난 8월 한달간 국군 휴가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군 병사에게 뚜쥬루의 인기 메뉴인 ‘815 돌가마브레드’ 교환권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독립기념관과 함께 진행했다.



독립기념관 태극기 광장 뒤로 겨레의 집이 보인다.

호두과자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천안이 빵의 도시로 품격을 높여가는 데에는 대전 성심당과는 또 다른 길을 묵묵히 개척하고 있는 윤석호 뚜쥬루 대표의 열정이 크게 기여했다. 윤석호 대표는 “원가 절감보다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빵이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라며 “천안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역사도시 천안의 품격 ‘독립기념관’과 국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2024년 여름은 각종 진기록을 양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열대야 일수도 평년 수준의 3배를 넘어 역대 1위에 올랐다.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며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달이 났다.

9월 말에는 정부의 제2 독립기념관 추진이 도마에 올랐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국가보훈부가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총사업비 245억 원 규모로 수도권에 조성할 계획이 알려지자 독립기념관을 품은 역사도시 천안에서는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국가보훈부가 소관 기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제2의 독립기념관은 명칭이 무엇이 됐든 천안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 상징성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도 “천안 독립기념관의 대표성과 위상 약화를 정부 스스로 부추기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 보훈부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9월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2, 3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전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천안독립기념관의 대표성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기념관 건립에 남녀노소 온 국민의 열정으로 성금 500억 원이 모아졌다. 1986년 8 월 5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독립기념관 유치를 두고 각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당시 천원군 목천면 흑성산 일대 100만 평이 결정된 것은 산수가 빼어나 명당으로 꼽힌

혹성산은 물론 이동녕과 유관순 등 수 많은 의사·독립투사들의 고향이 인접해 역사성에서도 다른 후보지를 크게 앞섰기 때문이다.

대지면적 91만 417m², 건축면적 4만 581m²의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 개관했다. 기념관에는 이곳이 민족정기의 교육장이자 전당임을 증거 하는 상징물들이 수두룩하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겨례의 탑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친 영원 불멸의 민족기상을 표상한다. 전·후면에 무궁화와 태극의 약동하는 부조가 있고 탑 내부에는 청룡·백호·주작·현무의 4신도를 상징화한 모자이크 조각이 4면을 장식하고 있다. 바닥에는 화강석으로 국토가 그려져 있고 활동주물관 24괘로 방향을 표시했다. 높이가 51m인 대형 조형물이다. 태극기한마당은 민족의 독립정신과 자주의식을 계승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새기며 광복 60년을 상징하고자 태극기 815기가 약 2314m² 면적에 연중 휘날리고 있다. 겨례의 집 앞 광장인 겨례의 큰마당은 폭 222m, 길이 258m, 면적은 약 3만 8535m²이다. 기념행사나 열린 음악회같이 수만 명이 모이는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길이 126m, 폭 68m, 15층 높이(45m)에 달하는 겨례의 집은 독립기념관의 상징이자 중심 기념 홀 역할을 하는 동양최대의 기와집이다. 고려시대 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설계한 한식 맞배지붕 형태로 북경의 천안문보다 더 크다.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에 오르는 계단은 105인 층계이다. 이는 일제의 애국지사 탄압사건인 105인 사건을 상징한다. 105인 사건은 1911

년 일본총독부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마사 타케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해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둔 사건이다.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겨례의 영원한 번영을 다짐하는 공간인 추모의 자리는 독립기념관 상단에 위치한다. 폭 105m, 높이 3~7m의 크기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의 벽부조는 민족의 탄생을 상징한다. 가운데는 전통적인 한옥의 지붕선을 새롭게 응용한 돌제단과 만물의 조화와 화생함을 의미하는 태극홈에서 끊임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선조들이 못다 이룬 한 맷 힌 울분과 맑고 깨끗한 민족정신 또는 혼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근원을 상징하는 분수가 있다. 애국선열들의 승화된 민족자존 정신을 표현한 봉화대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은 총독부 첨탑을 지하 5m 깊이에 반 매장해 최대한 홀대하는 방식으로 배치했다. 독립기념관의 주 건물인 겨례의집 서쪽, 즉 해가 지는 위치에 조성함으로써 일제 식민통치의 몰락과 함께 식민잔재 극복 및 청산을 강조했다. 겨례의 집 동남방 580m 지점 9917m² 부지 위에는 원호를 그리는 무지개 형상의 통일염원의 탑을 세웠다. 그 중심에는 통일의 종이 있다. 조선총독부철거부재전시공원에서 시작해 통일염원의 동산 입구까지 약 4km에 걸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은 가을 단풍여행지의 명소다.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한 학년 학생들이 독립기념관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 대학 입학 뒤에는 동아리의 신입부원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자전거로 다녀왔다. 타지 출신



독립기념관 전경

의 신입부원들에게 천안의 자긍심과 역사를 단박에 일러 줄 공간으로 독립기념관 만한 곳이 없었다. 결혼 뒤에는 자녀들과 소풍처럼 독립기념관을 자주 갔다. 너른 독립기념관에 아이들을 풀어 놓으면 아이들은 저마다 방법으로 기념관을 온몸으로 즐겼다.

독립기념관은 단순히 과거 사실의 박제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구성하고 진화하는 모습으로 역사도시 천안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기념관은 정기적으로 정비관을 정비하며 새롭게 발굴한 역사 사료들을 추가하고 최첨단 전시기술도 십분활용, 단순 관람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천안시도 역사도시 천안의 대표 자원인 독립기념관과 상생에 적극적이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활성화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으로 2023년부터 매년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권과 기념관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노선안도 검토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서곡 등에 아직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다. 독립기념관법은 기념관의 목적으로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명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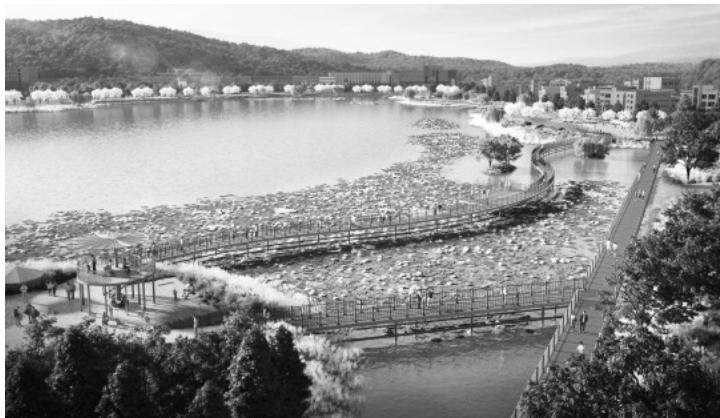
독립기념관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천안과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천안의 물 · 산을 걷다

공원은 도시의 ‘숨구멍’이다. 자동차와 소음, 사람들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여럿도 괜찮지만 혼자서도 좋은 곳이 공원 걷기, 공원과 만나러 가는 길에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다. 산책자의 느긋한 마음과 여유면 충분하다. 천안도 물과 산을 거닐 수 있는 썩 괜찮은 공원이 곳곳에 있다.

물가를 걷는 즐거움, 천호지 수변공원 · 성성호수공원

수변공원으로 오래전부터 천안사람들에게 친숙한 곳은 천호지다. 디지털천안문화대전에 따르면 천호지는 1957년 한



천호지 수변공원 야간경관개선 및 공간 특성화 사업 계획도. 천안시 제공

국 농어촌 공사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도시화 진전으로 논밭이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 등으로 바뀌며 현재는 농업용수 공급 보다 천호지 수변공원으로 더 사랑받고 있다. 2008년 호수 가장자리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2022년 천호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광장 및 산책로(나무데크)가 설치돼 안전하고 편안하게 호숫가를 산책할 수 있다. 천호지는 버스커버스커의 1집 수록곡 ‘꽃송이가’에 단대호수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도 탔다. 천호지와 인접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할 때면 평소보다도 천호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천호지는 꾸준한 수질 개선 노력으로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서식한다. 천호지 근린공원 주변에는 카페들도 즐비해 천호지 너머 지는 해를 감상하며 커피한잔 음미할 수 있다.



성성호수공원 모습. 천안시 제공

천호지 수변공원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공원 내·외부 연결성을 강화하고 테마공간, 그늘 등 공원 이용 시설 등을 추가하는 천호지 야간경관 개선 및 공간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야간경관조명도 확충하는 이번 사업을 마치면 천호지 수변공원에는 천호지 인근을 지났던 옛 철길인 안성선을 재현한 테마공간인 ‘만남의 길’을 비롯해 ‘연꽃산책길’, ‘포토아일랜드’ 등이 들어선다.

천호지 공원이 동남구를 대표하는 도심 수변공원이라면 서북구에는 성성호수공원이 있다. 성성호수공원의 옛 이름은 업성저수지다. 업성저수지는 성환천의 발원지이자 업성동과 성성동, 직산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1972년 만들어졌다. 천안시는 업성저수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이어지자 수질개선 노력과 함

께 2022년 방문자센터, 잔디마당, 숲놀이터, 피크닉장, 생태체험숲, 생태도랑, 생태탐방로(4.1km), 성성물빛누리교(280m) 등을 신설하고 ‘성성호수공원’ 시대를 개막했다. 성성호수공원은 짧은 역사에도 연평균 20만 명이 찾는 수변시설로 발돋움했다.

천안시는 성성호수공원의 장소성을 활용, 인근에 800석 규모의 성성아트센터를 건립해 호수공원 일대를 문화와 예술, 자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는 업성저수지가 천안 문화의 새로운 화수분이 될까? 시는 성성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 국비 197억 원 등 총 282억 2500만 원을 들여 천안수질정화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성성호수공원에 양질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동네산을 걷는 즐거움, 노태·일봉공원

오룡쟁주 지세의 천안은 도심에 동네산이 옹기종기 여러 곳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개발용지가 부족해지자 동네산들은 점차 아파트단지에 자리를 내주고 제 모습을 잃었다. 몇 해 전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동네산 훼손과 개발의 찬반 갈등이 첨예했다. 진통은 있었지만 주거시설을 늘리고 공원도 정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천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노태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일봉산 두 곳에서 진행중이다.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노태산의 총 사업면적 25만 4041.1m² 중 공원면적 17만 8041m²에 지난해 공원을 11월 완공했다. ‘숲속에서의 치유’라는 방향성 아래 조성한 노태공원은 한들 숲마당, 숲정원뜰, 놀이숲, 정상숲의 4가지 테마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거듭났다. 축구장 25개 넓이의 노태공원에는 진입광장, 숲 놀이터, 전망쉼터, 건강마당과 함께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주차빌딩이 들어섰다. 공원 진입광장에는 디지털 영상을 송출하는 첨단 조경 시설물인 미디어벽천이 새로운 명물로 등장했다. 10개 구간에 공원 진입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 공원주차장쪽 진입로와 주차빌딩의 옥상정원 진입로는 무장애길로 탄생했다.



노태근린공원 숲길 모습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28만 4373m²에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의 세부 시설로는 515m의 데크길과 산책로, 휴게마당, 생태학습원, 들꽃식물원, 숲속쉼터 6개소, 숲속놀이터, 물놀이터, 역사 어울림마당, 모험의 숲, 배드민턴장 3면이 들어선다. 옥외에 62대 주차가능한 주차장과 162대 수용 규모의 지상 3층 주차빌딩 1개소도 신설한다. 일봉근린공원은 연내 완공 예정이다.

산책은 소요하는 인간의 특권이다. 가까운 동네 호수와 산에서 특권을 마음껏 누려보자.

평화를 꿈꾸는 천안 한국전쟁 순례길

복수의 존재인 인류가 출현한 이래 한시라도 전쟁이 멈춘 때가 있었던가. 세상이 국가간 경계로 갈리기 이전에도 부족간, 도시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잠깐 멈춘 휴전의 시기도, 결국은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떠올리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공백기는 없었으리라. 그리고 2024년 인류는 어쩌면 범지구적인 파국의 단초가 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전쟁의 시기를 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느 국가를 지지하는가에 따라 국제적인 세 대결, 가치격돌의 양상을 빚고 있

다. 한반도와 먼 유럽 대륙에서 발발한 전쟁이지만 남북한 대치의 특수한 정세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도 급속히 전쟁의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하고 종국에는 무엇을 위해 이 싸움을 지속하는지, 명분도 희미해지는 전쟁. 대한민국은 혹독한 전쟁의 화마를 딛고 오늘의 번영을 이뤘다. 다시금 전쟁의 아픈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의 기억과 흔적을 평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선 ‘평화를 꿈꾸는 천안 한국전쟁 순례길.’

지키거나 죽거나… 천안 7·8전투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적 급습으로 일어났다. 전쟁 초기 승기를 잡은 것은 북한군이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과 달리 한국전쟁 발발 전 남북한 군사력에서 북한이 남한을 압도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한국전쟁 전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보면 지상화력의 경우 한국군 장갑차는 고작 24대였다. 북한군은 한국의 2배가 넘는 장갑차 54대에 전차도 242대를 보유했다. 대전차포도 한국군은 140문, 북한군은 550문이었다. 북한군이 자주포 및 각종 곡사포 728문을 보유한 데 비해 한국군은 곡사포 91문이 전부였다.

군사력의 절대적인 우위 속에 북한군은 6월 27일 서울 점령에 이어 7월에는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전쟁

의 양상은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유엔에서 한국 군사원조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당시 트루먼 미 대통령은 극동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맥아더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8군 제24사단을 한국에 긴급 투입했다. 윌리엄 딘 24사단장의 명령으로 선봉은 21연대 1대대 일명 스미스 부대가 맡았다. 스미스 부대는 부산과 대전을 거쳐 경기도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1950년 7월 5일 처음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의 위력에 밀려 스미스 부대는 60명이 전사했다. 82명은 포로가 됐다.

딘 사단장은 스미스 부대를 지원하며 북한군을 안성과 평택에서 막도록 러브리스 연대장이 지휘하는 제34연대를 보냈다. 34연대는 천안의 부대리 주변에서 북한군 기습을 당한 뒤 후퇴했다. 딘 사단장은 34연대장을 교체했다. 새 연대장은 딘 사단장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서 싸웠고 지략과 용맹함을 갖춘 로버트 마틴 대령이 선임됐다.

지난해 6월 19일자 대전일보 9면에는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라는 제목으로 로버트 마틴 대령이 이끈 ‘천안전투’를 포함한 ‘천안–금강 지역전투’를 상세히 조명했다. 기사 속 천안전투 전황이다.

“7월 8일 미 24사단 34연대와 북한 3사단, 105전차사단

이 천안 시내에서 시가전을 벌였다. 미군이 2000여 명인데 비해 북한군은 1만 2000여 명에 전차로 중무장한 터였다. 아침 6시부터 북한군은 성환 쪽 국도를 타고 천안의 서북쪽과 동북쪽의 도로로 진입했다. 전날 미군이 800여 발의 대전차 지뢰를 매설했지만 한 발도 터지지 않았다. 북한군이 밤 사이 제거했거나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전은 북한군의 일방적 우세였다. 시내에 진입한 북한군 전차는 천안역사 등 건물과 교회, 차량들을 포격했다. 미군이 잠복했을 만한 엄폐물을 제거한 것이다. 미군 장병들이 수류탄과 2.36인치 로켓포로 2대의 전차를 부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이날 오전 8시 마틴 연대장은 직접 로켓포로 전차를 공격하다가 적 전차의 포격으로 사망했다. 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이를 만에 전사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천안전투 뒤 전의전투, 그리고 금강 남쪽 세종시 대평리에 구축한 방어선에서 금강 방어 전투가 이어졌다. 전투 결과만 보면 천안–금강 지역전투는 모두 북한군이 승리했다. 그러나 이들 전투들이 과연 패배로만 점철된 전투일까? 같은 기사의 말미에 김재근 선임기사는 “한국전쟁 초기 미 24사단의 전투를 새롭게 평가”한다며 관련 내용을 서술했다.

“이 전투를 통해 아군은 T-34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전력을 확인하고 화력 증강에 나섰다. 북한군은 24사단의 강



마틴공원 전경

력한 저항과 미 공군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공포감을 느꼈으며, 남진을 머뭇거렸다. 천안과 전의전투에서 북한 4사단은 병력의 절반 정도가 희생됐다. 24사단이 죽음을 무릅쓰고 15일이나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아군이 영동과 김천을 거쳐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전열을 정비할 기회를 얻었다. 전투는 패했지만 전략적 목표는 훌륭하게 달성한 것이다.”

그때의 포성은 사라졌지만 천안 7·8전투는 현재도 우리 곁에 남았다.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401에 위치한 ‘마틴공원’이다.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옆 마틴공원에는 ‘한국전쟁천안지구전투전몰미군추모비’와 추모시비, 7·8천안 전투 현황을 소개하는 비석이 있다. 추모비에는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 아래 “천안시민들은 한국전 당시 천안전투에서 산화한 미합중국의 아들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글귀가 새



마틴공원의 ‘한국전쟁천안지구
전투전몰미군추모비’

겨졌다. 추모비 옆 “7월의 장미” 추모시비는 참전전몰 미군용사 71주년인 2021년 7월 8일 세워졌다. 추모시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1950년 7월 8일/ 죽순 같은 파란 젊음/ 초개같이 내던지고 가신/ 마틴대령과 108명의/ 산화한 미군용사들이여// 당신들께선 누군가의/ 아버지로, 아들로, 남편으로/ 그 애틋한 가족사랑/ 채 한번 나누지 못하고/ 대한민국 평화수

호를 위해/ 그 고귀한 목숨 죽음으로/ 이땅에 당신의 이름을 묻었습니다// 70여년의 무심한 세월은/ 떠난자와 보낸자의 아련한 아픈 기억으로/ 퇴색되어 가는데// 철모르는 7월 장미는/ 가신님의 핏빛인냥/ 더붉게 피어나는 오늘// 우리는 님들의 영전앞에/ 웃깃을 여미었습니다”라며 천안 7·8전투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상기했다.

천안 7·8전투의 미군 전사자는 추가 확인으로 최종 129명으로 알려졌다. 천안 7·8전투를 기억하고 영웅들을 기리는 일이 공원 조성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다. 디지털천안문화

대전에 따르면 천안시는 구성동~삼룡동~도리티 고개 구간을 일명 ‘마틴의 거리’, ‘마틴 사거리’, ‘마틴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보훈단체는 매년 마틴공원에서 천안 7·8전투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천안 7·8 전몰 미군 추모 기념 사업회는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천안 7·8 전투사’를 발행했다. 2008년은 마틴 연대장의 가족 12명에게 위문 서신과 위문품을 보냈다. 로버트 마틴 대령을 잊지 않는 천안시민들의 변치 않는 추모 마음과 의식에 마틴 대령의 후손들은 감사의 편지도 보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천안 7·8 전투가 뮤지컬로 재현됐다. 백석대학교 교수창업기업 주식회사 창연이 6월 16일 충남교육청학생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천안 7·8전투 추모 뮤지컬 ‘지키거나 죽거나(STAND OR DIE)’를 공연했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의뢰하고 창연이 제작한 뮤지컬에는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재학생 20여 명이 연출, 스태프 등으로 참여했다. 뮤지컬 ‘지키거나 죽거나’는 내용과 형식을 한층 다듬어 2024년 7월 5일에도 충남교육청 학생문화원 대공연장에서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났다. 올해 뮤지컬에는 천안지역 중학생들도 찬조출연해 세대를 뛰어넘어 천안 7·8전투의 의미를 교감했다.

백마고지 전투 영웅과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흔

로버트 마틴 대령과 더불어 기억해야 할 천안의 또 한 명 한국전쟁 영웅이 있다. 천안시 출신으로 온몸을 내던져 적

과 맞선 오규봉 하사다. 오규봉 하사의 군번은 8819630. 한국전쟁 당시 제9사단 30연대 소속이었다. 9사단은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 일원에서 중공군과 백마고지 전투를 벌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과 거의 열흘 동안 혈전을 수행하였고 결국 적을 물리치고 방어에 성공한 전투이다.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이다. 전투의 치열함은 12번의 고지 쟁탈전 속 주인이 7회나 바뀐 것으로도 증명된다. 양측의 전사자나 부상자도 속출했다. 총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한 중공군 제38군은 전사자와 부상자, 포로가 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9사단도 고지전 수행 기간 사상자가 3500여 명 나왔다. 전투의 격렬함으로 백마고지는 전쟁전보다 높이가 1m 낮아졌다고 한다.

9사단 부대원들이 온몸을 불살라 지켜낸 철원평야의 전략적 요충지 백마고지. 오규봉 당시 일병도 목숨을 내던져 백마고지를 지켜낸, 천안이 낳은 전쟁영웅이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1952년 12월 12일 오후 1시경 30연대 1대대의 강승우 소위와 오규봉 일병, 안영권 일병 세 명은 특공대를 자원했다. 박격포탄과 TNT, 수류탄을 들고 고지 정상의 적진에 육탄으로 뛰어 들어 기관총진지를 폭파하고 장렬히 산화했다. 백마3용사의 희생이 고지 탈환에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려 1953년 7월 1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강승우 소위는 중위로, 오규봉 · 안영권 일병은 하사로 추서했다. 전쟁기

념관은 백마3용사를 1995년 ‘10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1995년 10월 12일 전쟁기념관 한국전쟁실에서 유족과 육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들을 추모하는 현양행사를 거행했다.

백마3용사, 혹은 백마3군 신의 일원인 오규봉 하사는 1928년 충남 천안군 성환면 와룡리에서 태어나 성환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52년 4월 11일 입대했다. 오규봉 하사가 졸업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성환초등학교 교정에는 성환초 20회 졸업생인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오 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오규봉 하사의 동상은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당초 2013년 6월 7일 천안삼거리에 건립됐다. 성환초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그 뜻을 기리고 본받고자 2018년 6월 8일 모교인 성환초로 이전했다.

오규봉 하사의 동상 옆에는 성환초등학교 6·25참전유공자 명비도 세워져 있다. 명비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한국



성환초등학교에 있는
오규봉 하사의 동상

전쟁에 참전해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성환초 출신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일깨우고자 충남동부보훈지청과 성환초등학교가 2017년 11월 16일 건립했다.

명비의 뒷면에는 6·25 참전 유공자로

14회 박인환 15회 김성호 서수창 정달섭 16회 이대길 조호상 17회 이대웅 이종한 조중호 진산범 18회 김홍복 유후길 윤재준 19회 김영래 김종근 김종운 박수복 방진기 변윤오 유점산 이성근 임달선 정만근 정현섭 조재룡 진상범 홍택기 20회 권오성 김무열 김문식 박상규 박준보 배달진 오규봉 오세직 유영근 이규환 이기수 정대화 정태천 홍병희 21회 김원석 김종국 백수복 이연국 이연복 임병수 조봉우 조중희 최수남까지 총 50명의 잊지말아야 할 이름이 새겨졌다.

전쟁은 비단 군인들만의 싸움이 될 수 없다. 전투에 군인들만 투입해도 전쟁 양상에 따라 민간인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14년 펴낸 ‘통계로 본 6·25 전쟁’에 따르면 한국전쟁으로 한국군은 13만 7899명이 사망했고 45만 742명이 다쳤다. 실종과 포로는 3만 2838명으로 집계됐다. 유엔군은 4만 732명이 죽고 10만 3460명이 다쳤다.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유엔군은 9767명이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을 보면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민간인 인명 피해는 사망 24만 4663명, 학살 12만 8936명, 부상 22만 9625명, 납

치 8만 4532명, 행불 30만 3212명이다. 죽거나 다친이 모두 민간인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을 일컬어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의 무수한 전쟁부터 오늘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군인들이 시작하여,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다는 점이 숨길 수 없는 전쟁의 참상이자 본질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비극은 천안을 비켜가지 않았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진실을 염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탄생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도 다룬 1기 진화위는 2010년 상반기 조사 보고서를 폄냈다. 보고서는 충남지역 부역협의 민간인 희생 사건도 수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은 성환면 성환지서 민간인 희생사건, 직산면 군동리 성산 민간인 희생사건, 삼은리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이 신청됐다. 이들 사건들의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성산 금광 구덩이에서 희생되었음”, “직산면 소재지 금광 구덩이에서 희생되었음”, “창고에 구금 됐다가 총살되었음”,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직산 금광구덩이 쪽에서 총소리가 났음” 등의 대목이 나온다.

조사 결과 천안지역 경찰은 7월 7일 후퇴했다가 10월 초 복귀했으며 당시 상부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경찰서장이 주동자 소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석방, 그래서 인민군 점령시 보복과 학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 다만 천안지역 부역협의 희생사건으로 진화위에 신청된 사건은 모두 7건으로 조사결과 진실규명대상자 모두 지서 자체에서 ‘즉결 처분’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진실규명대상자 7명과 미신청희생자 14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했다고 밝혔다. 1기 진화위는 2010년 8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군 삼은리 저수지 등 충남 7개 지역 16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협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경찰,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 사건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경찰과 국군이 단지 부역협의만으로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불법행위였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진화위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 및 수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국전쟁 시기 천안의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해 올해 의미 있는 시도가 이뤄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166번지 옛 직산현 관아 인근 공터에서 ‘한국전쟁기 천안 직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를 열었다. 개토제 이후 민문연 충남지역위



한국전쟁기 천안 직산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해발굴 모습.
총남민문연 제공

는 직산초등학교 뒤편 직산읍 군동리 산9-1과 산10-5 일원을 2주에 걸쳐 시굴 조사했다. 시굴 면적은 각각 약 500 m². 당초 추정 유해 수는 각각 100여 구다. 시굴에서 희생자 유해 일부가 발견되면 곧이어 발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햇볕에 드러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걸까. 민문연 충남지역위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2차 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전쟁기 천안의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는 정봉모 판사도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초대지원장인 정봉모 판사는 1926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지법, 대전지법 판사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천안지원장을 역임하

며 천안지원 발전에 토대를 닦았다.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가 좌우명인 정 판사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마다하고 법원을 지켰다가 인민군에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열린 정부의 제17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정봉모 대전지법 초대 천안지원장을 포함한 175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 납북 당시 정 판사의 나이는 53세였다.

후배 법관들이 정 판사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표상으로 받들도록 천안시와 시의회, 천안지원 조정위원회 등은 정봉모 판사 흉상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2002년 12월 8일 천안지원에서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조선대 조의현 교수 가 제작한 정 판사의 흉상은 천안지원이 청당동으로 이전하며 새 지원 청사로 옮겨졌다. 2022년 6월 정봉모 판사의 흉상 앞에는 한 부부가 섰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과 그의 배우자 정우영 씨다. 정봉모 판사는 정우영 씨의 할아버지다. 당선인 신분으로 쳐 할아버지의 흉상을 찾은 김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공명정대(公明正大)’ 흉상 아래 새겨진 생전의 가르침 따라 참된 공복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렇게 역사는 또 이어지고 있다.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길풍경

글_ 윤성희
문학평론가



박문수 만나러 가는 북면 은지리

고적한 박문수 사당

봄기운이 섞여 있다고는 해도 아직 차가운 눈비 오는 2월 즈음이었다. 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길을 따라가다 목천읍 상동리에서 박문수 사당과 묘소 이정표를 보고 길을 꺾었다. 은지리 마을 입구에 있는 박문수 태마길 주차장을 옆에 두고 은지2리 마을회관을 지나 고령박씨 재실 주차장에 차를 멈춘다. 주차장 한켠에 암행어사 박문수라 새긴 판석으로 떠 받친 박문수 동상이 서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1932년에 지었다는 고령박씨 종종 재실이 고색을 띤 채 서 있다. 재실은 7칸 규모의 안채와 5칸 크기의 사랑채로 구성되어



박문수 제향을 위한 사당 충현사

있고, 그 안에는 1990년에 건립한 박문수 제향 사당인 충현사가 다소곳이 자리 잡았다.

천안시 동남구 북면 박문수길 149-1(은지리). 술한 이야 기와 영웅적 행적의 주인공인 암행어사 박문수의 집치곤 찾는 이 하나 없이 고적하고 쓸쓸하기만 하다. 고적하기로는 지난해 늦가을 지역 문인단체 회원들과 동행했을 때보다 더 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그냥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일 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증빙이다. 책과 시정(市井)에 떠도는 암행어사 박문수만 있을 뿐이지 애써 만든 테마길이나 그 유산은 대중들에게 의미화되거나 소구되지 않는 것이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이곳은 단순한 공간일 뿐 장소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크론베르크성 이야기와 장소성

이-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의 글을 시작하면서 노벨상을 받은 두 물리학자인 덴마크의 닐스 보어와 독일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를 소환한다. 두 사람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무대로 삼았다는 덴마크의 크론베르크성을 방문했을 때의 일로, 크론베르크성이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거기서 보어가 하이젠베르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햄릿이 살았다고 상상하자마자 이 성이 다르게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자인 우리는 이 성이 오로지 돌로만 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건축가가 그 돌들을 축조한 방식에 경의를 표하죠. 돌과 고색창연한 초록 지붕, 교회 안의 목각물들이 이 성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중 그 어느 것도 여기에 햄릿이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변하지는 않지만 이 성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성벽과 성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성의 안마당은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되고, 어두운 모퉁이는 우리에게 인간 영혼의 어두운 면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우리는 바로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하는 햄릿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햄릿에 대해 아는 거라곤 13세기의 한 기록에 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전부예요. 아무도 그가 실제로 살았는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물며 여기 이 성에 살았는지의 여부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누구나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던지게 했던 질문, 그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인간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지구상

의 한 장소, 여기 크론베르크성에서 발견되어야만 했죠.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게 되자 크론베르크 성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이 되는 거죠.”

이-푸 투안은 보어의 말을 끌어온 다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크론베르크 성을 떠도는 단순한 전설 하나가 두 유명한 과학자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 크론베르크 성은 그냥 돌을 쌓아 만든 석축 구조물일 뿐이다. 오래된 초록 지붕이나 교회 안의 목각물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물리적 소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전 그 성에 살았다는 햄릿이 연상되는 순간 성벽과 성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과학적 사고라면 햄릿 관련 이야기가 검증 가능하느냐의 사실성 여부에 국한되었을지 모른다. 돌을 축조한 기술적 방식, 성의 내구력과 방어적 효용 따위는 공간으로서의 크론베르크 성을 설명하는 객관적 항목이다. 그러나 전설로 채색된 크론베르크 성은 새로운 경험을 부여받은 장소가 된다. 하여 크론베르크 성은 햄릿이 거주하던 엘시노어 궁으로 변모하고 햄릿의 망령이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상상력을 일으켜 세운다. “어떻게 크론베르크 성을 떠도는 단순한 전설 하나가 두 유명한 과학자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이야기의 힘이다. 우리는 이야기에 반응하고 그 반응은 감정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그가 과학자일지라도.

원래의 크론베르크 성은 백지 같은 것일 터. 백지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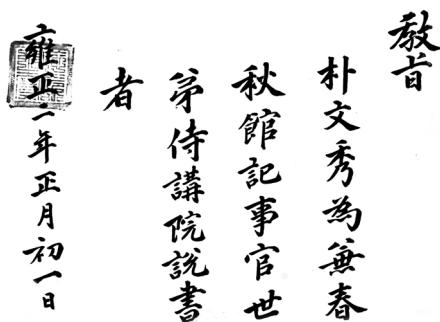
을 그리고 문장을 써넣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어린 손주가 처음 그린 그림, 연인에게서 보내온 편지는 함부로 찢어 없애도 좋은 종이가 아니다. 크론베르크 성에 깃든 사연을 떠올리고부터 그곳의 돌멩이 하나에서까지 햄릿의 체취가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햄릿의 전설을 통해 의미를 얻은 크론베르크 성은 마침내 그곳을 방문한 과학자에게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사실 햄릿 전설은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짜임새 있는 플롯도 갖추었을 리 없다. 그런데도 그곳이 장소로 변모하는 순간 인간의 본원적 고뇌에 공명하고 현재의 삶에 영감을 주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등이 크론베르크 성의 이야기와 뒤섞이면서 장소는 그렇게 인간화된다. 장소는 그러한 영감과 상상력의 수원지가 되어 인간의 욕망에 소구한다. 욕망에 소구하는 장소는 강렬한 정서와 감정을 일으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증식된다.

박문수에 대한 역사적 이해

화제성이 높을수록 이야기는 더 빨리 증식되고 더 많이 재생산된다. ‘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그 가까운 사례다. 근세 조선사에서 박문수(1691~1756)만큼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 박문수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박문수가 정말 알고 있는 그대로인지 연보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는 외가인 진위현(지금의 평택시 진위면)에서 출생하여

다섯 살 되던 해 한양으로 이사했다. 열 살이 되기 전에 조부와 백부, 부친을 잊달아 여의는 바람에 어머니 손에서 성장해야 했다. 31세인 1721년(경종 원년) 진사 초시, 이듬해(경종 2년) 감시에 급제한 뒤 33세가 되는 1723년 증광시 문과에 합격하고 곧바로 관로에 진출한다. 인사 적체가 심하여 과거에 급제해도 실직(實職)이 보장되지 않던 시절, 박문수는 본가, 외가, 처가를 명문가로 둔 출신 배경에 힘입어 급제 후 바로 예문관 검열(檢閱)로 임명되고, 뒤에 세제시강원(世弟侍講院) 설서(說書), 사헌부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게 된다. 특히 1724년 1월에 세제시강원에 설서로 임명된 것은 그의 생애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설서 임명은 시강원의 낮은 직급(시강원 설서는 정7품으로, 지금의 6급 주사 정도 직급)임에도 세제인 연잉군(延礪君)에게 경서와 도의를 강론하는 자리였고, 그해 8월에 자신보다 세 살 아래인 연잉군이 영조로 즉위함에 따라 임금과 사제의 연이 시작될 수 있



박문수를 세제 시강원 설서로 임명한 교지

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치적 노선을 넘어서 평생의 지기로 지내왔으며 소론인 박문수가 노론의 견제와 배척을 견디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영조라는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박문수가 탄탄대로 파격적인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박문수는 1728년 3월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에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난을 진압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쟁의 관점에서 보면 소론인 박문수로 하여금 같은 소론인 이인좌를 평정하게 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략이었지만 영조에게는 탕평의 정책 명분을 만들어준 사건이기도 했다. 이때의 전공으로 박문수는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에 봉해졌다. 이를 계기로 박문수는 영조의 더욱 두터운 신임 속에 쾌속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에 두루 등용될 수 있었다. 입직 7년차인 1730년(영조 6) 한 해에만 대사간, 예조참판, 대사성, 도승지에 올랐을 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사신으로 청나라에도 다녀왔다. 그 사이 정치적 굴곡이 없던 바 아니었으나 판서직에도 병조판서와 형조판서에 두 차례 임명된 것을 포함해 호조판서, 예조판서 등도 역임하였다. 어사로 파견된 것 이외에도 경상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 황해도 수군절도사 등의 직책을 띠고 지방에 내려간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정치적 이력을 영조와의 사적 인연이나 개인적 행운 덕분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더구나 박문수에게는 노론이 주도하는 당파정치에서 소수파라는 절대적

한계가 있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독설과 농담으로 상대 정파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인간적 약점까지 있던 터였다. 그가 죽은 후 기록된 《영조실록》 속의 ‘박문수 졸기(卒記)’가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나랏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해이하지 아니하여 병조·
호조 양부(兩府)에서 이정(釐正)하고 개혁한 것이 많았으며, 누
차 병권(兵權)을 장악하여 사줄의 환심을 얻었다. 그러나 연석
(筵席)에서 때때로 간혹 골계(滑稽)를 하여 거칠고 조잡(粗雜)한
병통이 있었다.(《영조실록》 영조 32년(1756년) 4월 24일)

‘거칠고 조잡한 병통’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정책 입안이나 진휼 전문가로서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업무역량의 탁월성이 없었다면 영조의 두둔과 편애도 오래 가지 못했을 터. 박문수는 요즘 식으로 치면 세무행정과 복지행정, 군 인사행정 등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능력자였던 셈이다. 특히 미천한 백성들의 혼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둘 정도로 민생 현안에 적극 개입한 위민(爲民) 행정 성과가 그를 출세의 에스컬레이트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다혈질적이고 비타협적인 성품 때문에 영의정까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죽어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박문수의 어사 이력

박문수에게 가장 많이 호명되는 암행어사 직함. 그런데 그는 과연 암행어사였나? 박문수의 어사 이력 여부를 두고 설

왕설래가 있다. 이를 밝히는 대표적인 두 편의 논문이 있는데, 심재우의 「역사 속의 박문수와 암행어사로의 형상화(2010)」와 조한필의 「박문수의 어사 활동과 문화콘텐츠화 연구(2023)」다. 이중 조한필의 연구는 박사논문으로 제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문수는 암행어사 직을 수행한 일이 아예 없거나 딱 한 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문수가 어사로 활약한 횟수와 기간은 모두 네 차례, 1년여에 불과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암행어사로 파견된 적은 한 번도 없다.(심재우, 위 논문)

어사는 네 번 했는데, 암행어사는 아니다? 무슨 말인가? 암행어사는 ‘암행(暗行)’이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목적과 행선지, 자신의 정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맡은 일을 수행하는 어사를 가리킨다. 연보에 따르면 박문수는 1727년 10월부터 1728년 3월까지 영남별견어사로 파견된 사실이 있다. ‘별견(別遭)’은 말 그대로 ‘별도로 파견한다’는 뜻으로, 특정 임무를 띠고 파견된 일반어사를 가리키는 범칭이다. 그러니까 어사 제도에는 암행과 일반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박문수의 경우 영남별견어사 직책 수행은 암행어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조한필은 견해를 달리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안집(安集), 진휼을 감독하는 감진(監賑) 업무와 함께 암행도 해가면서 수령을 감찰했기에 1회의 암행어사 겸임 경력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박문수의 어사 이력과 별견어사 활동」) 조

한필은 여기에 더하여 박문수의 나머지 일반어사직 수행은 부정하고 있다.

박문수가 후일 맡았던 영남감진어사, 북도진휼사, 영남군세사 등은 일반적 어사로 볼 수 없는 당상관 직책이다. 비변사 구관당상(句管堂上) 직위를 갖고 영남감진어사, 북도진휼사로 파견된 것이었다. ……영남군세사도 1750년 균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60세의 나이에 부족한 국가 재원 충당을 살피기 위해 파견된 고위직이었다. (조한필, 위 논문)

비변사 구관당상 직책은 팔도에 한 명씩 파견되어 군무(軍務)를 맡아보던 당상관이었으나 조한필의 논리대로라면 박문수에게 암행어사 겸임 경력 1회 외에는 어사 활동이 없었던 셈이 된다. 기민 구제를 위한 진휼과 양역(良役)의 폐단을 개혁할 군세 목적으로 특별히 파견된 관리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어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역사 속의 박문수와 암행어사로의 형상화』)을 감안하더라도 박문수의 어사 경력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채 인식되는 것만큼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박문수 스토리텔링

그렇다면 무엇이 박문수의 어사 활동을 부풀렸을까. 또 다른 박문수 연구자인 김명옥이 말한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망설임 없이 직언하는 꽃꽃함, 경직된 경연장에서의 해학적 언어 구사, 불같은 성격,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 선비(로서)의 단아한 명망 부족”(『박문수, 구전과 기록 사이』) 같은

박문수의 입체적 성격 특성이 그의 위민 업적과 결합되어 세간의 화제를 모으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이 화제성이 박문수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으로 보인다. 정보 유통과 관리가 소수 특정 계층에만 독점되던 시절, 민중은 정보와 이야기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카더라-식’ 뉴스에 실려 박문수의 화제성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임금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거침없는 성격, 소탈하면서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모습, 별endar사로 파견되어 올산부사, 영주군수, 경산현감, 양산군수 등의 부패 관리를 파직시켰다는 사이다 소식은 서로 섞이고 맞물리며 재생산되었다. 민중들의 정치적 욕망은 박문수에게 투사되어 이상화된 관료 이미지를 만들고 영웅적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를 축성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문수는 마침내 역사에서 설화 속으로, 역사 인물에서 설화의 주인공으로 이행해 나간다.

설화는 두 가지 전승 계층이 있다. 문헌설화는 주로 문자 사용 계층에 의해, 구전설화는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계층에 의해 생산 전승된다. 『청구야담(靑邱野談)』, 『송천필담(松泉筆譚)』, 『계압만록(溪鴨漫錄)』, 『기문총화(奇聞叢話)』, 『동야휘집(東野彙集)』 등의 야담집에 실린 박문수 스토리는 대표적인 문헌설화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헌설화에서 박문수는 욕심이 많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가 하면 정승을 놀리는 버릇없는 짚은이다.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하고 부정으로 과거에 급제하기도 한다.”(『박문수, 구

전과 기록 사이』) 이런 부정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박문수와 달라도 한참 다르다. 문헌설화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편저자의 편견과 왜곡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야기 생성과 유포가 문자 사용 계층, 그중에서도 노론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하면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구두 전승에 의해 이루어진 구전설화 속 박문수는 민원 해결사이자 영웅이다. 심지어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는 아직도 ‘문수당’에 모셔지는 마을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다. “구전설화 속 박문수는 신의 대리자로서 민중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중의 생활에 밀착해서 어려움을 보살펴 준다. 인재를 발굴해 나라에 공헌하는 한편, 민생을 안정시키는 융통성 있는 관리로서 인식된다.”(『박문수, 구전과 기록 사이』) 당시 천대받던 민중들은 자신들을 보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줄 영웅의 출현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력가를 징벌할 수 있는 직책은 암행어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테다. 박문수는 그러한 기대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민중은 박문수에게 암행어사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는 민중에게 ‘포청천’이었고 사이다이자 히어로였다. 결국 박문수를 암행어사로 만든 것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스토리텔링이었다.

발터 벤야민(『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은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해주는 전통의 연쇄를 만들어” 내는 힘

이 있다고 말한다. 세대를 이어가며 구전을 가능케 한 그 힘의 대표적 결과물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담겨 있다. 1980년대 초까지 민중 사이에 전해오는 남한 지역 옛이야기를 살샅이 훑어 채록한 85권짜리 방대한 규모의 책이다. 이 책에 박문수 이야기가 271편이나 실려 있는데, 단일 인물 이야기로는 가장 많은 편수고 대부분은 박문수를 암행어사로 설정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들은 구술자에 따라 약간의 윤색이 가미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자연발생적인 가지치기 수준에서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채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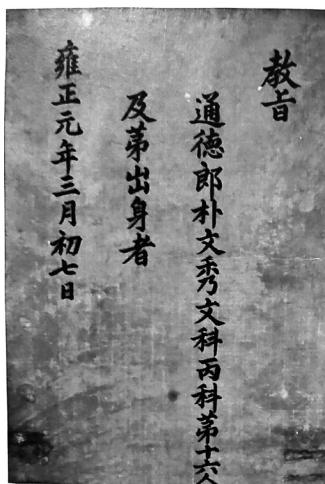
민간 구전설화의 이야기 짜임새가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야기성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자극과 흥미를 욕망하는 대중의 심리에 부응하여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는 더욱 강력한 이야기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야담소설과 어린이책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 『어스·박문수전』(1921, 작자미상), 『암행어사 박문수』(1927, 노성산인, 중외일보), 『암행어사 박문수』(1962, 혀문녕, 불이출판사)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이야기책(특히 어린이용 위인전)에서는 기존 설화와 다른 전략적 차별화가 시도된다.(이중 혀문녕의 작품은 이후 영화, 어린이책 등의 저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명옥) 정교한 서사적 구성을 위해 인물이 겪었을 법한 사건들은 더욱 풍부한 상상력으로 채워진다. 인물의 역할도 암행어사에서 수사관이나 탐정 등으로 바뀌면서 박문수 스토리텔링의 스펙트럼은 확장과 재생산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 스토리텔링의 원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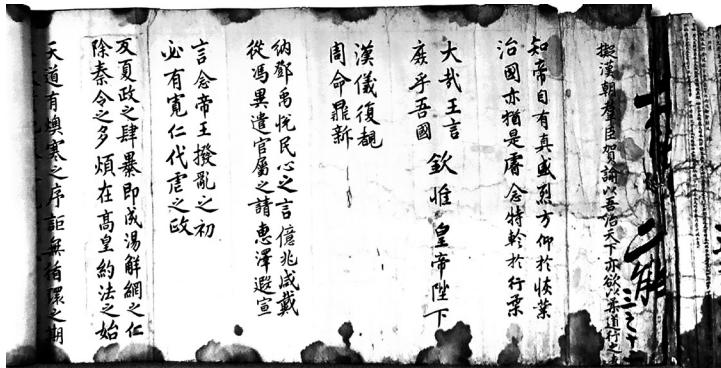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의 증식과 재생산의 과정은 ‘시뮬라시옹’의 논리를 닮았다. 사전적 의미의 시뮬라시옹이란 진실 혹은 현실을 모방한 허구가 나중에는 현실 자체를 대체하여 원본을 밀어내는 현상을 가리킨다. 장 보드리야르의 이론에 따르면 모방은 원본을 밀어낸 복사본과 복사본의 복사본 사이에서 성립하고 원본성(原本性)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된다. 박문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설화가 되고 설화는 다시 상상력의 날개를 타고 박문수라는 이름만 내건 소설이나 영화가 된다. 변주가 변주를 낳고 그 변주의 변주가 또 새로운 변주를 낳는 일이 무한 반복되면 역사적 근거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갖가지 종류의 박문수 스토리텔링이 객관적 근거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역사 스토리텔링은 시뮬라시옹과 형제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박문수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앞에서 말한 대로 박문수는 31세인 1721년(경종 원년) 진사 초시, 이듬해(경종 2) 감시에 급제한 뒤 33세가 되는 1723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과거 제도로는 1차, 2차, 3차의 관문이 있는바, 1차를 통과한 응시생 240명은 2차에서 최종 합격자 33명으로 걸러지게 되는데 이들끼리 3차에서 최종 순위를 경합한다. 문과(대과)의 경우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으로 선발 인원이 제도화되어 있다. 문과 시험의 합격증에 해당하는 홍패

(紅牌)에 박문수는 병과 16인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종 합격자 33인 중 전체 26등을 한 셈이다. 여기까지 가 역사적 사실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때의 과거시험은 문학시험이 아니라 난이도가 매우 높은 논술형 책문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명종 13년 시제(試題)는 천문학적 이치에 관한 것이었다. “해와 달이 떴다 지는데 어떤 때는 낮이 길고 어떤 땐 밤이 긴데 왜 그런가? 일식과 월식은 왜 생기나? 밤하늘의 보통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별이나 혜성은 어떤 때에 보이는가?” 이때의 과거시험에서 21세의 이이가 장원급제하였고 답안으로 제출된 ‘천도책(天道策)’은 명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성리학적 핵심을 꿰뚫은 명작으



문과 병과를 제16등으로 합격했음을 알리는 교지, 일종의 합격증서



시권, 과거시험에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표를 적은 답안지

로 전해진다. 박문수가 응시했던 시험에서는 “내가 천하를 다스리고자 할 때 또한 유도(柔道)로써 하고자 한다.(吾治天下亦欲以柔道行之)”는 내용에 대해서 의표擬表를 짓는 것이었다. 박문수가 과거시험에서 작성한 시권(試卷, 일종의 답안지)이 남아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안성 칠장사의 ‘박문수 합격다리’

경기도 안성의 칠장사에는 ‘박문수 합격다리’가 있다. 개울을 잇는 조그만 다리인데 그 앞 안내판에 다음처럼 새겨놓았다.

때는 바야흐로 1723년, 과거 수험생 박문수는 두 번의 낙방 끝에 오늘날 “문화 수시의 SKY”라고 할 수 있는 진사과에 당당히 수석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5세부터 도전한 시험을 8년만인 32세에 삼수 끝에 장원 급제한 셈입니다.

박문수의 합격 일화인 “몽중등과시(夢中登科詩)”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박문수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곳 칠장사 나한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나한전의 부처님이 나타나 과거시험에 나올 시제(詩題)를 알려 주어 박문수는 진사과에 급제하였고 암행어사와 병조판서까지 지냈습니다.

오늘날 칠장사 나한전은 각종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합격 기도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 다리를 건너 칠현산으로 올라가면 어사 박문수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천년고찰 칠장사와 칠장사를 품은 칠현산의 정기를 받으며 어사 박문수의 전설을 따라 함께 걸어볼까요?(안성시)

역사적 사실로만 말한다면 박문수 스토리에는 왜곡과 조작이 섞여 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안내판 내용의 사실성을 검증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없다. 설화란, 스토리텔링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커리가 만들어 내는 빵이 그 때그때 입맛에 맞추어 진화를 거듭하듯이 이야기도 시대적 감각에 따라 변주와 어렌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원본은 한 번 당기면 돌아보지 않는 방아쇠 같은 것이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거기서 발사된 총알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만 본다. 칠장사 합격다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장소다. 다리 난간에는 합격 기원 리본이 가득 채워져 있다. 수능시험이나 대학 입학시험 시기마다 방문객이 줄을 섰다는 증거물이다. 우리 사회에 각종 시



안성 칠장사 합격다리에 걸린 소원지

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칠장사 합격다리는 욕망과 사연에 소구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시대의 요구나 욕망을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가 장소의 지속가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 은지리에는 안성 칠장사에는 있는 무언가가 없다. 인근에 은석사도 있고 안성에는 없는 박문수의 묘소도 있지만 대중을 부르는 그 무언가가 없다. 박문수가 직접 터를 잡은 무덤과 그가 답사했을 길들이 있고 거기 떨려 나오는 설화들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정서적 힘은 없다. 현



은석산에 있는 박문수 묘소

대 사회의 감각과 욕망을 자극하는 시의성 있는 매개가 없는 것이다. 그없는 것을 나는 사회적 소구력을 갖춘 스토리텔링 이라고 부르겠다. 입시 철마다, 취업시험 때마다 조르르 달려가 합격다리를 건너고 난간에 소원지를 걸게 만드는 게 소구력 있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몽중등과시’ 설화에 착안하여 전국의 청소년을 불러들여 백일장을 열고 합격엿을 팔 수 있는 게 이야기의 힘이다. 칠장사 합격다리는 이제 물리적 실체라기보다 하나의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아무도 박문수 이야기들을 뜯금없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는 어차피 이야기를 좋아하는 호모 픽투스이고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다. 이들을 유인할 이야기를 천안은 만들 수 없을까. 박문수 테마길을 되짚어 나오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상상이 봉봉거린다.

디아스포라의 수구초심, 국립 망향의 동산

현재진행형의 차별과 멸시

별 수 없는 공원묘지다. 오와 열을 맞추어 어느 하나 뺏지 않는 석비(石碑)들만 한여름의 정적 속에 갇혀 있다. 원래 그런지, 폭염이라 그런지 인적조차 가뭇하다. 잘 다듬어 정리한 잔디밭이 오히려 인위의 손길을 혼토(懸吐)할 뿐이다. 걸치적거리는 삶의 풍경들이 햇볕에 휘발되고 진공만 남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 묘비들이 증언하는 근대의 역사까지 진공일 리 없다. 여기가 어딘가. “해외동포를 위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는”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국립 망향의동산>이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72-8번지. 도로명조

차 망향로다. 나는 잠시 그늘을 찾아 모바일 검색을 해본다. 이곳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음처럼 갈무리돼 있다.

국립 망향의동산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같은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 영령들의 안식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일본·중국·인도네시아,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미국·캐나다·브라질, 독일·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해외동포 영령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또한 해외동포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영주 귀국자 등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묘비가 품고 있을 저마다의 가슴 아픈 서사를 떠올려보지 않는 게 이상하다. 묘비 하나하나가 개인사이



오와 열을 맞추어 서 있는 화강암 석비들

면서 동시에 민족 전체의 역사가 머물러 있는 기억의 창고이 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읽고 덮어버린 지나간 페이지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억은 끝 없이 현재를 환기한다. 묘비가 저 햇볕 속에서 녹아내리지 않는 한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묘비는 계속하여 현재를 불러내며 현재진행의 상태를 유지한다.

얼마 전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으로 불리는 106회 일본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전체 학생수 138명이라는 교토국제고가 무려 3,441대 1의 경쟁을 뚫고 드라마 같은 우승을 쟁취해낸 것이다. “동해 바다 건너서~” 하는 한국어 교가가 방송 전파를 탔고 승리의 열띤 분위기 속에 혐한(嫌韓)의 한풍이 덩달아 휘몰아쳤다. “한국어 교가 기분 나쁘다”, “왜 다른 나라 학교가 나왔나” 등의 발언은 교토국제고 우승 뒤에 쏟아진 차별적 반응들이었다. 재적 학생의 70%가 일본인이고 한국계는 고작 30%에 불과하다는데도 이런 후폭풍이 일어난 데는 한국어 교가보다 한국인에 대한 불쾌감이 더 큰 원인이었을 테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척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 그리고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하는 일본인의 뿌리 깊은 태도의 방증이었다.

인권의 가치가 진보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완화됐다는 오늘날도 그러한데 몇십 년 전, 100 수십 년 전 그때는 어땠을까. 상상해 보기 가슴 아프지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국경과 언어와 민족의 장벽이 성채처럼 완강하던 때, 추방과 망명으로 이국땅을 떠돌던 선조들의 유령 같던 삶을 한 번쯤 대면해 봐야 한다. 그 기억과 상징의 현장이 눈앞에 있다. 오늘 내가 거닐고 있는 이곳 <망향의 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빼아픈 상징이다. 일본,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삶이 여기 다 집약되고 압축되어 있다. ‘흩어지고 뿌려진’ 디아스포라가 ‘돌아와 하나 된’ 아나스포라로 몸을 바꾸어 지금 여기 석비로 서 있다.

수구초심으로 부르는 망향가

수구초심(首丘初心)은 눈물 없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차별과 배제 속에서 막막한 생존을 위해 무너지는 마음을 몇 번이고 추슬러야 했던 사람에게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들에게 수구초심이란 피눈물을 찍어 뼈와 가슴에 각인한 망향의 언어일 테다. 그리하여 터져 나오는 비명을 짓누르며 상처와 한을 싸맸던, 피 묻은 붕대를 펼쳐 거기 적힌 사연을 읽어야 한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수구초심이 마침내 유골 되어 귀환한 비통한 내력을 저 묘비 속에서 기억해내야 한다,

그 기억을 살려낸 사람 중에 재미작가 이민진이 있다. 그의 소설『파친코』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드라마로까지 제작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강제한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망향의 동산 위령탑

이삭이 천국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선자가 마음속으로 그린 천국의 모습은 고향이었다. 투명하고 빛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고향 땅의 달과 별에 대한 기억도 이곳의 차가운 달과 별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았다.(『파친코1』)

유미에게 조선인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나 수치스러운 가족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끔찍한 멍에일 뿐이었다. 왜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자신을 결코 사랑해 주지 않는 의붓어머니 같은 일본에 불어 사는 것 또한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파친코2』)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차별을 겪

디면서도 정체성을 지켜온 재일 디아스포라, 소위 ‘자이니치’(일본에서 그렇게 부르는)들의 삶을 기억하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허구이면서 다큐멘터리이고 동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의 기록이다. 실제에서 일본으로 향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토지를 박탈당한 농민 출신이었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토지를 박탈당했다는 것은 생활 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물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취업, 학업, 단순 동경 등 자발적인 경향의 일본 도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일제의 수탈이 노골화될수록 조선인이 강제당한 선택은 고향으로부터의 내몰림, 곧 강제된 이주였다.

조선인은 일본, 만주,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흩어져 생활의 방도를 구했다. 일본으로의 이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 남부 출신, 그중에서도 경상도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도 출신이 당시 인구 구성비에 비하여 비중이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부산-시모노세키(下関) 간 관부연락선 외에 1920년대에는 제주도-오사카(大阪)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기도 했던 것이다.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확대되면서 대거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일본 전장과 군수산업에 집중 배치되었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유민의 역사다. 이렇게 일본 내 유입된 조선인 인구는 해방 직전 최고조에 달하여 전체 210여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들 중 140만 명 정도가 해방되면서 귀국하고, 나머지 60~70만 명은 각자의 사정과 처지 때문에 ‘자이니치(在日)’가 되어 일본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된 이주자들의 디아스포라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일본 이주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한 재일 조선인 2세는 자신이 겪은 어릴 적 피폐한 삶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집에서는 어머니도 치마저고리를 입었고, 모두 다 조선어를 썼다. 조선인 마을에는 일본인이 살지 않았다. 마을에는 이야기꾼이 있어서 조선어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식으로 조선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었다. …… 원래는 마구간으로 사용되던 곳에 조선 마을이 생겼다. 저지대에 습기가 많았다. 땅 주인도 확실하지 않은 곳이고, 하천이 있는 곳이라 조선인은 다리 밑에 살기도 했다.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치면 판잣집이 날아가고, 물이 넘쳐나서 큰 곤욕을 치렀다. (재일코리안 연구자 최석의 회고담-박미아,『파친코를 통해 보는 재일코리안 차별의 역사』)

조선인은 일본에서 경제적 최하층부를 이루었고 사회적으로도 최하층민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 저변부의 일용노동자, 토목공사 인부, 공장노동자, 광부 등으로 일하였지만 일본인 보다 임금이 낮았다. 최근 연일 매스컴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노동 착취의 상징처럼 재조명되고 있는 사도광산(佐渡礦山) 문제도 결코 지우거나 삭제될 수 없는 역사의 트라우마다. 1940년을 전후하여 1,141명의 한국인들이 끌려와 강제 노역을 했다고 알려진 사도광산은 우리 기억의 아픈 손가락이다. 조선인에 대한 일상적인 멸시와 차별이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더 극단적인 사례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이다. 이 참변은 일본에서 식민지 출신 조선인이 겪었던 고난의 상징이자 일본인의 대(對)조선인 의식이 표출된 대표적 사건이다. 이 제노사이드 사건은 우리로서는 이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프랑스 철학자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의 비유대로 하면 “더 없이 강력하여 모든 측정기기를 모조리 파괴해버린 지진”과 같은 충격으로 남아 있다.

여기 안장된 유골들, 묘비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또 다른 사연들이 차고 넘쳐날 테다. 묘역에 세운 묘비에, 봉안당의 유골함에 각자(刻字)한 망자의 이름이 그 사연의 실마리를 전한다. 나는 그 이름들을 읊조리듯 한 명씩 불러본다. 이순조, 신점동, 김정혜, 김종년, 정필남, 문광득, 김진화, 이춘재……. 불러도 불러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름들. 고다이호, 하이두시오, 박게이노, 석천구자, 산본호일, 서산화길, 평산대시……. 이 얼마나 기막힌 설움을 껴안은 이름들인가. 누구는 부모가 물려준 우리 이름 그대로, 또 누구는 조상의 성씨 하나만이라도 지키겠다는 강한 일념을 품은 이름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일본식으로 개명하여 쓰던 이름으로 각자가 소원하던 아나스포라를 이루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동질적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이 국적, 언어, 이름이라는 표상이었다. 국민국가의 국민은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동일한 이름짓기 방식을 따르게 돼 있다. 디아스포라는 거주하는 국가와 국적도 언어도 이름도 일치하지 않는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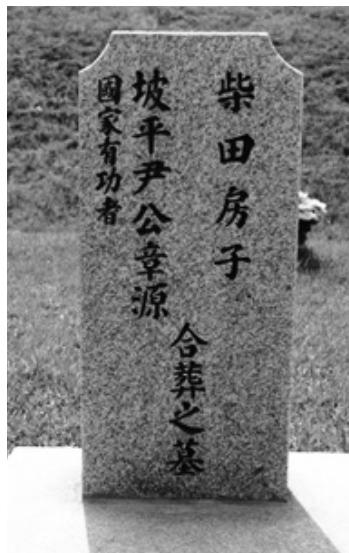
벽한 타자다. 이 불일치에 의해 타자는 차별과 멸시, 편견과 배제의 표적이 되고 만다. 특히 일상에서 언어와 이름은 국 민국가의 타자임을 드러내는 즉각적인 유표성(有表性)을 만 들어낸다. 자신이 타자라는 낙인을 숨기기 위해서는 국적은 그렇다쳐도 언어와 이름만은 거주지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한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앞서 인 용한 재일 코리안 쇠석의 경우처럼 조선어는 집안에서만 허 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타자의 유표성, 언어와 이름

“엉터리 일본어를 못 알아들은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드라마 〈파친코 시즌2〉 1화에서 윤여정이 연기한 재일 한 국인 선자는 주문을 잘못 받은 빵 가게 일본인 직원한테 오히려 이렇게 면박을 받는다. “우리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가는 가게 있잖아요.” 재일 한국인을 향한 일본인의 차별에도 참는 데 이력이 난 선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1989년 일본 도쿄였다. 일본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선자에게 그가 타자임을 환기시키고 이곳이 그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폭력이고 모욕이다. 언어는 그렇 게 초대받지 않은 자, 불청객을 걸러서 경계 밖으로 내모는 데 쓰는 위험 감지 센서가 되기도 한다.

이름은 또 어떤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일본에서 비국민 으로 살아야 했던 재일 코리안에게 이름은 동화와 억압 사

이에서 갈등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일상적’인 요소였다.…… 재일 코리안의 본명 사용은 일본 사회의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상봉, 박수경, 디아스포라적 정체성과 차이의 정치) 일본식 이름(通名)으로 사느냐, 본래의 이름으로 사느냐 앞에서 수없이 갈등하였을 재일 코리안들. 우리는 그들에게 자칫 애국/비애국의 꼬리표를 붙이기 쉽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냐 저항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이분법으로 단순화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수많은 이름의 묘석이 서 있듯이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가 합장된 묘지

그들이 걸어왔던 삶이 길과 방식, 처지와 형편도 다 다를 수 밖에 없었을 테다. 나는 한 묘석을 쓰다듬어 본다. ‘국가 유공자 파평 윤공 장원/시전방자 합장지묘’. 그렇게 적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나스포라가 된 조선 남자의 삶의 길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여기저기 서 있는 무인적자(無人籍者)의 묘비다. 화강암 석비에 아무 새김 글자도 없는 무인적자 묘석, 이름도 무엇도 알려진 게 없다는 뜻일 테다. 자기 정체성의 최초이자 최종 표지인 이름마저 잊어버린 채, 조국이라고, 그래도 이곳이 고향이라고 돌아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귀향 앞에서 더 미안해지는 무덤이 있다. 무궁화 묘역 지나 장미 묘역 또 지나 봉안당 아래 모셔진 무연고 합장 묘역. 거기에 신내천현(神奈川縣) 무명 한국인 묘, 태평양 사이판 터니안도 전몰 무명 한국인 묘, 광도현(廣島縣) 무연고 한국인 합동 묘, 사할린 희생 동포 묘,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름도 모르고 쟁겨줄 유족도 없는 채 단지 합동이라는 편의 아래 잠들어 있는 것이다. 유골이라도 제대로 수습되어 왔을까. 영혼이라도 뒤따라 돌아와 있을까. 이름은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식민의 역사만은 잊지 말라는 듯 어디서 매미 몇 마리 크게 소리 쳐 울어 쌓는다.

가해자는 쉽게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질’을 한다고 비난하고 공격한다. 지금도 과격한 일부 우익들은 재일 코리안을 공격하거나 협박 편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조형물

을 보내면서 ‘한국 때리기’ 퍼포먼스를 즐긴다. 아직도 그들은 “조선인,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조센징 카에레)”라는 단골 구호로 재일 코리안 공동체를 공격한다. 그러니 교토국 제고의 한국어 교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입맛 당기는 먹잇감이었겠는가. 내재화되고 체화된 제국주의적 근성은 살에 달라붙은 피부 같은 것이어서 오늘도 ‘포스트 식민주의’를 구성하고 작동하는 연료가 된다.

오늘의 역사학교, 망향의 동산

이 반동의 역사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기억이다. 기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 행위이다. 생각해 보라.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어제의 나를, 10년 전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라

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존재성은 오로지 나의 기억 위에 서만 생성되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역사라고 다르지 않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더 이상 역사가 아니다. 부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역사에 진공을 만든다면 그건 환자의 나라다. 아니다. 환자의 나라가 아니라 유령의 나라다. 기억이 없는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망향의 동산이 있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길풍경

글_ 김학수

충남시사신문 기자



글

김
학
수

두 마리의 천안거북이 천안 병천천을 따라… 북면과 병천면의 거북바위 이야기

파충류인 ‘거북(거북이)’은 오래 사는 동물의 상징이다. 그래서 열가지 오래 사는 ‘십장생(十長生)’에 들어있기도 하다. 바다거북은 보통 40여년을, 장수거북과 땅거북들은 100년에서 150년을 산다고 한다. 1750년에 태어난 ‘에드위타’라는 거북이는 255년을 살다가 2006년에 죽으면서 가장 오래 산 육상동물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천안 원성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생김새가 ‘거북이’를 닮았다는며 동(同)의 마스코트로 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실제 원성1동은 두 개의 법정동(원성동 ·

유량동)을 갖고 있는데 도심부분인 원성동이 거북이의 머리를, 유량동이 몸통을 나타내고 있다. 지형상의 원성1동은 바닷속으로 유유히 잠수하는 거북이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면 원성1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거북이(거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와 잘 어울린다. 아파트 중심의 도심에서 원성동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형태를 갖고 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 ‘장수’ 이미지가 강하다. 나비를 닮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거북이로 채택된 이유이기도 하다.

천안시는 시목(능수버들), 시화(개나리), 시조(비둘기)를 갖고 있지만 천안 31개 읍면동 지역에서 이렇듯 마스코트를 내건 곳이 아직 없다.

‘거북이’ 이야기를 하니깐, 천안에 대표적인 ‘거북바위’가 있다. 바로 북면 연춘리의 복구정과 병천 가전리의 거북바위다. 물론 이들 말고도 수신면 발산리의 거북바위라든가 병천 도원리의 거북바위, 동면 구도리의 자라바위 등이 전해오고 있다.

병천 가전리 ‘거북바위’

병천 가전리는 작은 마을이다. 뒤로는 은석산 자락이, 앞으로는 들판에 병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학혁명의 가슴 아픈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는 세성산이 자리잡고 있다.



[김시민사사처] 병천 가전리 김시민사사처의 거북바위

임진왜란때 진주대첩의 명장, 김시민 장군이 어린 시절 살았다는 마을이다. 그리고 김시민과 관련해 커다란 느티나무와 바위와 이무기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느티나무 아래에 큰 뭇이 있었는데 뭇 속에 언제부턴가 이무기가 살면서 마을에 해악을 끼쳤고, 당시 아홉살인 김시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무기 잡기에 나섰다. 한 아이가 이무기를 유인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고, 이를 노린 이무기가 물 위로 머리를 쳐들자 김시민이 화살을 쏘아 죽였다. 이 때문에 연못에서 흘러내려가는 냇가가 이무기의 피로 십여일이 붉었다고 한다. 후에 후손인 김재홍씨가 ‘사사처(射蛇處—활로 뱀을 죽인 곳)’란 비를 세워놓았다.

천안시는 이 느티나무의 나이를 442년(현재기준)으로 추정해놓고 있다. 나무가 심겨질 때는 1582년이고 김시민이

이무기를 죽일 때는 1563년쯤이니, 그렇다면 나무의 나이를 고려할때 말이 안 맞다. 이무기를 죽일 때보다 20년쯤 후에 나무가 심겨졌으니 말이다.

상상 속의 ‘이무기’가 등장하는 이야기 자체가 허구일진데 그 속의 나무인들 어떠랴. 또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느티나무도, 이무기도 아닌 ‘거북이’ 아닌가.

느티나무 옆에는 구암(龜巖)이 있다. 잣밭 앞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 두 개가 겹쳐서 거북 모양으로 서있다. 바위 동쪽에는 ‘김씨세거(金氏世居)’, 북쪽에는 ‘백전동천(栢田洞天)’이라 새겨져 있다. 명종때 명신 김충갑이 이곳 백전마을에 살면서 그 호를 구암이라 하였다. 김충갑은 김시민 장군의 아버지다.

김시민 이전부터 있었던 거북바위가 마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장수를 상징하는 만큼 마을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았을까 싶다. 다만 한가지 눈에 띄는 건 어느 때인지 거북이 등에 일자로 난 흔적이다. 거북이를 잘라내려는 시도로, 그 사연이 사뭇 궁금하다.

북면 연춘리 ‘거북바위’

북면 연춘리의 ‘복구정(伏龜亭)’은 꽤 유명(?)하다. 석갈비로 유명한 음식점, 복구정이 있었던 까닭이다.

연춘리에서 병천천(북면하천)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길 옆에 보이는 복구정의 역사는 조선 선조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엎드릴 복에 거북 구.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은 바위 옆에 정자를 세웠는데 영조때 문장 신풍수, 죽동 이인실, 만화 유진한, 구정 이세희 등이 모여서 시를 지으며 놀았다는 곳이다. 그 후 장마로 없어졌는데 1964년 강릉김씨 종중에서 다시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 이곳의 거북이를 보러 온 사람이라면 실망하기가 쉽다. 아무리 둘러봐도 ‘거북이’ 같지가 않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느 한군데 ‘딱’ 그 지점에서 거북이가 보인다. 완벽한 포토 존이다. 큰 바위와 작은 바위로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의 거북이로 보이는 그곳에 서면 ‘아, 그래서 거북이로구나’ 알게 된다.

지금의 복구정은 하천과의 사이에 도로가 나있어 운치가 적다. 이래서야 옛날 선비들이 음풍농월(吟風弄月)하며 지낼 수 있었던가 싶다. 이상히 여겨지던 차, 예전에는 길이 하천과의 사이가 아닌, 정자 바깥으로 나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것이 도로를 반듯하게 내다보니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운치를 잃은 것일까, 아님 복구정이 가진 운치를 간과한 것일까. 생각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대인들의 병폐다. 길이 반듯하게 나있다고 사고가 덜 나는 것도 아니건만, 호젓하게 하천가의 복구정 묘미를 살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길을 내는 사람이든, 집을 만드는 사람이든 자격요건에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길을 버리고, 집을 만드는 사람이 집을 버려놓는다. 아이러니다.



[복구정1]

요 자리에 서서 바라보면 눈을 감고 있는 거북이가 보인다.



[복구정2]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왜 거북이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다.



[복구정3]

복구정 옆에는 도로가 나있고 병천 천이 흐른다.

두 마리 거북이가 만난다면

천안은 국보가 세 개 있다. 보협인석탑과 천흥사동종, 그리고 봉선홍경사 갈기비다.

이 중에 하나가 ‘봉선홍경사 갈기비(국보7호)’인데, 화강암의 거북이 등 위로 비석을 이고 있는 형태로 1026년(고려 현



[병천천] 성거읍 성거산과 북면 위례산 등지에서 발원한 병천천은 청주 미호강과 합쳐지고, 다시 금강과 만난다.

종 17년)쯤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년 된 유명 거북이를 중심으로 북면 연춘리와 병천 가전리 거북이 등 천안 곳곳에 10마리쯤 거북이(바위) 흔적이 전해오는 고장이다.

북면 연춘리와 병천 가전리 거북이는 천안의 대표적인 하천 중 하나인 ‘병천천’을 통해서도 연결돼 있음은 어떤 인연이 있음인가.

한번은 두 거북이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했다.

<북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은 병천천을 통해 청주 미호천과 만나고, 더 훌러훌러 공주 금강과 만나며 결국 군산쪽에서 바다로 빠져나간다. 두 거북이가 떨어진 거리는 가깝다면 가까운 대략 십리(4km). 어느 날엔가 이들 두 마리 거북이가 다정하게 병천천을 타고 바다에 이르는 상상을 해본다. 그들 두 마리 거북이가 남매 사이여도 좋고 친구관계라도 좋

다. 상류에 있는 연춘리 거북이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 십리를 헤엄쳐 내려오고, 동시에 가전리 거북이는 200미터쯤 논농사를 짓는 들녘을 엉금엉금 기어 병천천에 다다른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만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막히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곤 함께 영화 ‘니모를 찾아서’ 라든가,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라든가, 이들도 그런 모험을 하며 바다로 둘루랄라 훌러가는 거지.〉

거북이는 사람들에게 있어 선량하며 장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거북이에 좋은 감정을 담고 있으니 이렇듯 조금이라도 닳은 바위가 있으면 그저 ‘거북바위’라 했나 보다. 가장 흔한 바위형태가 반원형 같은 거북이 모양 아니던가.

병천 가전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원골 건너에도 거북바위 전설이 깃들어 있다.

한 풍수가가 거북바위를 보고는 동네의 기운을 빨아먹는다고 하자 동네사람들이 없애버리려 했다. 이에 한 사내의 꿈에 나타나 ‘나는 구암산의 산신인데 마을사람들이 내 입을 없애려 하니 나를 좀 살려달라’ 했고 그는 바위를 조개려 하는 마을사람들을 허겁지겁 쫓아가 산신의 입이 없어지는 것을 막았다 하는 이야기다.

이같이 거북이는 바위형상을 통해 우리 삶에 친숙한 동물이 되었다. 장수(長壽)를 꿈꾸거든 병천 가전리와 북면 연춘리의 거북바위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지역향토를 알음알음 알아가는 것도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다.

글

김

학

수

천안 광덕산에서 연리지를 만나다 200년 그리움의 사연 담고 자라는 나무

천안에서 가장 높은 산은 699미터의 ‘광덕산’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성거산이 579미터이니 그 높이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다음으로 흑성산이 519미터, 태조산이 421미터…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백두산이 있고 남한에 한라산이 있듯이 천안에는 광덕산이 있는 겁니다.

천안 광덕산은 가장 높다는 것 말고도 자랑할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리지’입니다. 어디나 나무들이 많은 숲속엔 연리지가 있을 것이지만, 기막힌 사연을 담고 있는 연리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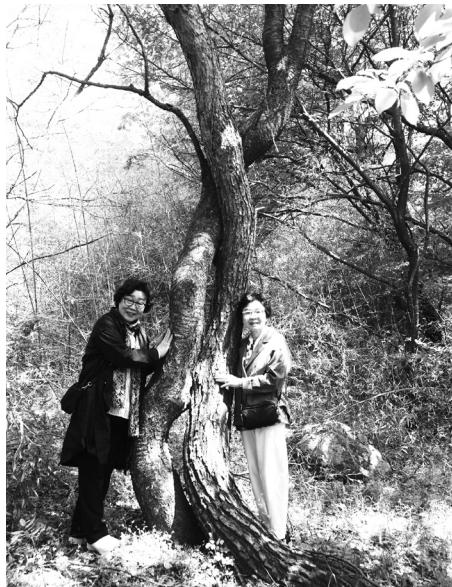


[운초 김부용가는길1] 광덕사 일주문에서 오른쪽으로 난 광덕산 등산로길로 오르면 800미터쯤 되는 곳에 운초묘가 있다.



[운초 김부용가는길2] 운초 김부용 묘로 가는 숲속 오솔길은 아득하거나와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사계절 등산객을 반겨준다.

광덕사 일주문에서 광덕산 정상을 향해 시계 역방향으로 오르는 길. 실개울을 따라 걷는 그 길은 제법 아득하고 흐젓 합니다.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인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맞이해 주는 오솔길은 식물원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봄날에 걷는 길은 꽃들의 향연입니다. 4월의 벚꽃과 만나기라도 하면 행복



[광덕연리수] 천안문인 둘이 운초묘 뒤에 있는
연리수와 다정한 한 컷

이 한 움큼. 살랑이는 봄바람에 흐드러진 벚꽃잎이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흡사 겨울철 함박눈이라도 만난 것 같아 마구 설렙니다.

광덕산 일주문에서 연리지까지는 넉넉히 800미터쯤. 맨 오른쪽 등산로길을 따라 외길 숲속을 걸으며 ‘부용묘’를 찾으면 묘에서 20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의 연리지는 남녀가 다르듯 두 나무의 종류가 또한 다릅니다.

보통 ‘연리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크고 멋진 연리지라니. 천안문인들이 운초 추모제를 지내다 발견한 것



[느티나무연리] 운초묘 위에는 또다른 형태의 연리수도 있다.
팔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인데, 하필 운초묘 옆이라니 참 희귀하다 생각들을 합니다. 한 문인은 평생을 연리지 한번 못 봤는데, 이렇게 보게 됐다면 감격해하기도 합니다.

‘연리지(連理枝)’란 맞닿아 연이어진 가지를 뜻합니다.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으로, 남녀간의 사랑 혹은 깊은 부부애를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뿌리가 한 몸처럼 된 ‘연리근’도 있는데, 이는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야 확인할 수 있으니 더욱 희귀한 발견이겠죠.

사람들은 ‘연리목(연리수)’이나 ‘연리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운초묘에 있는 것도 가지가 붙은 것이 아닌 나무가 붙은 것이니 ‘연리수’라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연리지는 한 몸처럼 붙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꽈배기처럼 서로 포옹하는 정도의 연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연리지가 있을까요.

200년 전, 천안에는 평범하지 않은 이들의 애듯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시 높은 벼슬을 했던 천안 광덕사람 김이양 대감이 75세에 평안도 성천기생 운초 김부용을 소실로 들인 겁니다. 운초는 아직 20대의 꽃다운 나이였죠. 둘은 ‘플라토닉’ 사랑을 하였나 봅니다. 참고로 플라토닉 사랑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불같은 사랑을 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무리(無理)’라고 봅니다. 요즘에야 70대도 50대 같은 신체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 나이에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의 평균수명이 고작 사십도 안되었을 테고, 육십 넘기기가 어려운 일이다 보니 누군가 60이라도 맞이하면 마을이 나서서 ‘환갑잔치’를 거창하게 했던 것입니다.

김 대감은 스스로 이를 시인한 것 같습니다. 그의 시에서 언급한 걸 보면 남녀간 사랑보다는 ‘시벗, 술벗’의 관계로 둘의 관계를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당시 운초 주변에는 대감의 소실로 들어가는 기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빼어난 기생’이어야 가능했겠지만, 운초 또한 얼굴도 예쁜데다 춤도 잘 추고 시까지 잘 짓는 기생이었으니 김이양 대감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겁니다. 특히 시에 대해서는 황진이, 매창과 함께 언급되는 조선시대 대표 여류시

인이 바로 운초 김부용입니다.

‘운초당시고’는 일명 ‘부용집’이라고도 하며 춘소, 도영현, 행화촌 등 130여 수가 실려 있습니다. 운초 자신의 쳐지에 대한 감상적인 시가 많고 일부는 김이양 대감과 주고받은 시들입니다. 운초의 시가 오늘에 이르러서도 300수 넘게 전해져 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16년을 함께 보낸 후 김이양 대감이 광덕산에 묻히고, 몇 년 후 죽음을 맞이한 운초는 ‘대감의 묘 근처에 묻어달라’ 합니다. 정실부인이 합장해 있으니 자신은 먼 발치에서나마 묻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 정이든 의리든 멋진 여성입니다.

문 앞에 연리수가 있는데
까치 한 쌍 나무위에 둥지 틀어 다정하네
들창문 마주하며 그윽히 비추이고
가지와 줄기 은밀하게 사귀네

이 시는 김이양 대감의 시로, 운초를 그리며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리수를 빗대어 자신과 운초의 결코 얕지 않은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감집 문 앞에 연리수가 있었거니와, 이제 200년이 지난 운초의 묘 뒤에 연리수가 있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신기한’ 인연입니다. 하늘로 치뻗은 아름드리 연리수. 둘의 마음이 죽음 뒤에라도 맞닿아 있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람의 삶이란 어찌 보면 별개 없습니다. 짧은 생, 그리 한(恨)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한번뿐인 생’입니다. 즐겁게 살다 가기도 하고, 때론 슬픔과 고통이 가득 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겠지요. 가까이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좋겠지요. 더 좋은 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천생연분’처럼, ‘연리수’처럼요.

그리움이 연리지 만들어

후한사람 채옹은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누운 3년동안 옷 한번 벗지 않고 70일간 잠도 자지 않았답니다. 하늘도 감동했는지, 앞마당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리(連理)’란 말이 처음 생긴 유래입니다.

이후 시인 백거이는 ‘장한가’에서 연리를 사랑하는 사이로 표현했습니다. 당 현종이 죽은 양귀비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죠.

/깊은 밤 남몰래 속삭인 말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연리지가 되자

송나라 때는 강왕과 한씨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김이양 대감묘

강왕은 아름다운 하씨를 빼앗기 위해 그의 남편 한빙을 변방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묻어달라며 하씨도 따라 죽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둘의 무덤을 서로 바라보게 했는데, 그날 밤 무덤에서는 개오동 나무가 자라 가지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뿌리는 서로 맞닿았답니다. 연리(連理)가 된 것이죠.

각각 다른 나무가 합쳐져 하나가 된다는 것. ‘연리’는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 합니다. 조금 밉고, 조금 싫으면 어떻습니까. 남남이었으니 조금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 길지 않은 생(生), 서로 동화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사는 방식 아닐른지요! 생각이 머무는 날, 천안 광덕사일주문을 지나 운초묘의 연리수를 찾아보세요. 연리수 주변에는 바위도 있고 대나무도 있습니다. 바위는 단단하고,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합니다. 모두 변치않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윤초와 김이양 대감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 그 변치않음이 200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소통, 우정, 사랑…, 이에 대해 심기일전(心機一轉)이 필요하다면 광덕 연리지를 찾아주세요.



[부용묘]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윤초의 시 앞에서 천안문인협회 회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글

김학수

천안삼거리공원 구석에서 ‘춤바람난 그들’
조각작품 춤꾼들의 춤사위, 손끝에서 느껴지는
자유의 바람



[춤꾼조각상과 흥타령관] 춤꾼조각상 뒤로 천안흥타령관 옆 벽면이 보인다.

춤꾼들이 있는 곳. 그들의 멋진 춤사위에는 어떤 것에도
구속됨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다. 느낌이 있는 곳, 그래서 내

가 좋아하는 곳. 더욱 특별하게 된 계기도 있었다. (추정컨대)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어느 춤꾼이 그들을 엿보며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엿보면서이다. 예술의 힘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걸 목격하며, 난 그들의 춤사위가 더욱 멋있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목천에서 일이 일찍 끝나 귀가하던 중에 천안삼거리공원을 들렀다. 이리저리 걷다가 벤취에도 앉았다가 하며 모처럼의 한적함을 만끽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원 끄트머리에 있는 천안홍타령관으로 걸음을 뗀 것은, 건물 뒤편의 작은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 있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은 맛집’ 같은 곳인데, 서너점의 조각품이 설치돼 있는 미니갤러리라 할 수 있다. 그중 춤꾼 수십명의 춤사위가 펼쳐져 있는 조각품이 유독 눈을 끌었다. 첫 눈에 반한다는 말이 맞았다. 다양한 춤사위 동작을 펼쳐놓았을 뿐인데 왜 내 눈에 꽂힌 걸까. 마치 우울하고 답답할 때 바다가 보고 싶듯 나에게 ‘바다’같은 힐링을 가져다 주는 곳이 되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 잠자리 몇마리가 곡예비행을 하며 날아다녔다. 햇빛은 어느새 남쪽에서 서쪽으로 성큼 성큼 이동하고 있었다. 파아란 하늘과 붉은 기운이 맞닿는 시간. 곧 색채의 마법처럼 노을이 펼쳐질 것이다. 바깥 전시(풍경)는 조명의 역할을 하는 해가 지면 관람(시간)도 끝나는

법. 마음이 조급해진 내 마음도 몰라주고 문제가 발생했다.

불청객이 있었다. 이곳에 오면 난 늘 혼자였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작품을 보고 있는 것이 좋았는데… 나만의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무너진 건 차치하고, 그가 눈치채기 전에 살금살금, 하지만 재빠르게 돌아나왔다. 내 관람을 방해한 그지만, 나 또한 그에겐 방해자일 뿐이다. ‘곧 가겠지’ 하며 흥타령관 옆 개울가를 마냥 서성였다. 혼자 사색에 젖어 관람하는 묘미를 알기에 그냥 돌아갈까 말까 고민도 서너 번.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관람객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 어린 내 눈에 들어온 건 훨체어를 탄 소녀의 모습이었다. 작은 체형은 중학생으로 보이지만 그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얼굴은 오히려 대학생에 가까웠다.

그녀를 지나치며 갑자기 상념 한 자락이 뛰어들었다. 몸이 자유로운 춤꾼과 자유롭지 않은 소녀가 오버랩되었고, 거기서 상상과 허구의 이야기가 재조립되었다.

‘춤추는 조각상들’

담장 위에 죽 늘어선 조각상들은 하나같이 역동적인 동작들 뿐이다. 가만히 서서 명상하듯 하나하나 춤꾼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손끝 발끝을 바라보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한 세상에 바람만이 살랑살랑 불어댄다. 춤꾼들의 웃자락이 흔들린다. 바람이 거세지고, 신명난 춤사위에 그들의 웃자락이 펼려인다.

춤꾼들은 바로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주연들을 모델로 만들



[춤꾼과 담장] 담장 위에 펼쳐진 춤꾼조각상들

어진 조각품들. 그들의 춤사위에서 예전에 봤던 춤축제 속 춤꾼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상상은 자유롭게 가지를 친다.

조지훈의 시 ‘승무’는 어릴 적 한 때 내 감성을 지배했다.
〈얇은 사 하야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깍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특히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하는 대목에서 그녀의 무한한 슬픔에 동화되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춤사위는 ‘한(恨)’에 머무르지만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처연하지만 숭고한 의식임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승무’에 등장하는 그녀의 춤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멋질 거라



춤꾼조각상 1



춤꾼조각상 2

확신한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의 자유’로 향하는 춤이었으니까.

춤은 현실의 속박을 푸는 열쇠다. 어쩌면 인간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한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뛰어넘어야만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오직 본능에 의해 표출되는 몸짓. 그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춤꾼들의 춤사위가 ‘담장 위’라는 설정이 무척 만족스럽다. 실내에 설치됐거나 낮은 곳에 있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바람의 자유 또한 구속되어 그리 신명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몸이 불편한 소녀가 오랫동안 바라봤던 것도 그런 자유함이었을 것이다. 휠체어 소녀의 마음이 읽힌다. 어떤 사정으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몸이 불편했던 건지, 앞으로 회복은 되는 건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내가 보는 풍경을 그녀도 보며 자유함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 뿐.



춤꾼조각상 3

춤꾼조각상 4

되돌아나오는 길에 서쪽하늘은 붉은 색으로 점점 물들어 가고 있었다.

춤꾼들의 조각품은 흥타령춤축제의 춤꾼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춤축제가 펼쳐지는 공원의 한가운데가 아닌, 이 같이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는 것에는 아쉬움이 크다. 더불어 거기엔 설치장소를 마땅히 찾지 못해 자리잡은 다른 조각 작품들도 있다. 적지 않은 작품비용이 들었음에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곳에 설치된 것은 누구의 불찰일까.

나같은 사람이 5년 여를 독점하듯 볼 수 있는 것은 공적 아쉬움 속에 깃든 사적 기쁨이다. 아주 가끔씩 찾아가는 그 곳이 나에겐 정신적 위안이 되는 장소. 이곳을 아는 소수만의 전유물에서 이젠 인기있는 관람명소가 되어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있다.

춤꾼들의 조각품을 좀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냈다. 가까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담장과 하늘이 맞닿는 곳에 춤꾼들이 있다. 담장과 춤꾼과 하늘만 보이



춤꾼조각상 5



춤꾼조각상 6

는 무대다. 그 각도에서 그들의 신명나는 춤사위가 더욱 또 렸해 보인다.

휠체어 탄 그녀는 그 뒤로 한번 더 마주쳤나 보다. 코로나 19가 창궐하던 시기, 조각작품을 보고 나오는데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그녀가 앉아있는 휠체어를 밀면서 내 앞을 지나갔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관람자라서 다행이다 싶었다. 몇가지 물어보고 싶은 호기심을 꾹 누르고는 그곳을 나왔다. 그녀가 무용학과를 꿈꾸는, 또는 꿈꿨던 고등학생일 수도 있다. 분명 가볍지 않은 사연을 안고있을 것이지만, 난 순간적으로 ‘상상속의 그녀’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다.

대학 1학년때였다. 자취하는 과 친구 때문에 무용학과 여자애를 알게 됐는데, 친구는 극히 내성적이어서 같은 집에서 자취하는 그 애를 몇 개월이 지나도록 소개도 못한 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여자애도



춤꾼조각상 7

춤꾼조각상 8

마찬가지여서 내가 ‘얼굴 좀 트자’며 불쑥 노크하는 통에 빼꼼 문을 열고 인사하게 되었지만 그땐 엄청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그 집 또한 명의 내성적인 여선배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깔 웃기도 하며, 우리 넷은 가끔 영화도 보고 생일도 쟁겨주고 지냈다.

여자애는 무용을 세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름 있는 무용학과 교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무용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한번은 ‘무용을 안했으면 무얼 하고 싶었을까?’ 하고 물은 적이 있다. 질문을 받고는 한참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해하는 그녀를 보았다. “글쎄, 그렇다면 내가 살아는 있을까?” 하며 제법 진지하게 말했다. 농담 같지만 진담이 서려 있었다. 어려서부터 무용을 배웠다는 가까운 몇몇 친구들도 그냥 무용을 천직같이 여기고 있다 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녀와 친구들이 비슷한가 보았다. ‘천직’.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건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았다. 나와 살아온 세상이 달라서



춤꾼조각상 9

그 애의 말이 한동안 충격이었다.

그 후 직장생활을 하며 10년은 지난 즈음, 열 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다는 또다른 여성을 알게 됐다. 20대 초중반 무릎통증이 너무 심해 결국 무용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한동안 방황을 하다 죽을 결심을 하고 떠난 인도여행이 그녀에겐 ‘신의 한 수’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요가를 알게 되고부터 극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다. 춤은 아니라도 요가도 몸을 쓰는 일이나 요가강사로 행복하다고 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춤이 제 세상인줄 알던 진짜배기 춤꾼들. 춤꾼조각상들을 보러 온 휠체어의 그녀를 보며 웬지 내가 아는 두 여성의 생각났다. 춤추는 조각작품들이 있는 그 곳은 그녀가 인정한 재활치료 공간일 것이다.

내 눈에 춤꾼들이 춤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면, 춤꾼인 그녀는 그들의 춤사위 동작을 보며 나름의 의지를 새기고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일 터. 자신



[충꾼 옆 조각상]

충꾼조각상들 주변에 여러 조각상
들이 함께 전시돼 있다.

만의 고통과 극복과정이 있겠다 싶다. 그 시간은 짧을 수도,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노자(老子)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여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하였다. 물처럼 살 아가라는 그의 사상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물의 가장 큰 성질은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므로 허물 또한 없다.

사람들은 대체로 크고 넓고 깊은 것들을 동경한다. 예로 하늘이나 바다, 구름, 산, 해와 달, 별, 구름 등을 쳐다만 봐도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는 이유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바람’을 특히 좋아한다. 물도 좋지마는 바람 또한 물처럼 막힘이 없다. 다투지도 않는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기도 하고, 대기를 순환시키며 다양한 기후도 가져다 준다. 빨리 가는 자에겐 맞바람을, 천천히 가는 자에겐 뒷바람을 준다. 조각작품에서도 진정한 춤꾼들에게 다채로운 바람이 느껴진다. 몸짓만이 아닌 영혼의 바람, 영혼의 자유함을.

그녀는 지금도 그곳을 찾을까. 아직도 번민 속에서 헤어나질 못할까, 아니면 이미 치유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누구라도 이 멋진 춤꾼들의 춤사위를 볼 수 있도록 삼거리 공원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된다면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느낌있는 전시관람이 되길 바란다.

글

김

학

수

천안역사를 빛낸 천안의 대표적 역사인물 천안에서 ‘홍대용 · 홍양호’ 선생 찾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땅. 그 장장한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왔을까.

한번은 ‘천안의 역사인물’ 하면 누가 있을까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유관순, 이동녕, 조병옥, 이범석 등이 거론됐다. 그러다 언급된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부분은 독립투쟁의 역사 속 인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기치로 투쟁한 자랑스러운 천안인이라는 것이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격을 갖춘 고장이라는데 있다.

우리는 좀 더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이 깊어졌다. 홍대용 ·

홍양호 선생이 있고, 진주대첩의 영웅 김시민(1554~1592) 장군이 병천 가전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까지 살았다는 것을 꺼내놓았다. 이기영, 이돌천, 한영숙도 튀어나왔지만 모르는 이가 더 많았다.

와, 20명도 못 채워? 결국 장구한 역사에 비하건데 끄집어 낸 인물이 적고 빈약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리는 아쉬움에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는 대표역사인물로는 누가 적합할까란 질문으로, 그에 따른 고민이 바뀌었다. 의견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졌고 결국 흐지부지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안의 한 중견 향토사학자가 홍대용 선생과 홍양호 선생을 꼽은 적이 있다. 특히 천안에서 나고 자라 대부분의 일생을 보낸 ‘천안 토박이’ 홍대용 선생, 그는 천안을 대표할 만한 사상과 인품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했다. 홍대용 선생을 1순위로 놓는데 있어 천안 지역사회는 별 이견이 없을까.

홍대용 선생은 천안 수신면 장산리에 생가지(충남문화재자료 제349호)와 묘(충남기념물 제101호)가 있으며, 홍양호 선생은 천안 일봉산 자락에 묘(충남문화재자료 제13호)가 있다.

그 길을 한번 휘적휘적 찾아가는 것도 천안사람이라면 반가울 일이다.



담헌 홍대용선생

위대한 과학사상가, 담헌(湛軒) 홍대용 선생

다툼이 없으니 온갖 비방 면하겠고
재주스럽지 못하니 헛명에 있을소냐.
수시로 좋은 친구 찾아오면
아름다운 산나물 술안주가 일미라오.
높은 난간에서 거문고 타노니
곡조속에 슬픈 감회 그 뉘가 알겠는가

– 담헌서 내집 3권 / 건곤일초정주인(乾坤一草亭主人) 중에서

천안에서 홍대용 생가지를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자가용을 타면 시골의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코 앞까지 데려



홍대용생가 가는길

천안 수신면 장산리 홍대용 생가지
(문화재자료 349호)와 홍대용과학관,
홍대용 묘소(도지정기념물 101호)
가는 시골길이 하천길 따라 한적하고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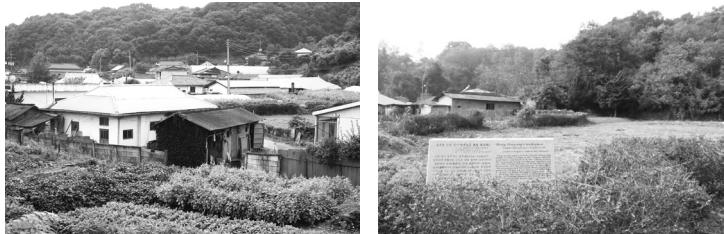
홍대용묘에서 바라본 전경

홍대용 묘소에서 바라본
수신 장산리 마을.

다 준다. 편리한 세상이다. 만약 운치를 느껴보려거든 수신 상록리조트에 차를 두고 홍대용 생가지와 홍대용과학관, 홍대용 묘를 거쳐 되돌아오는 5km 남짓 산책코스를 추천한다.

지름길도 있지만 약간만 돌면 병천천변을 한적하게 걸을 수 있다. 주변은 모두 들녘이라 바람이라도 불고 코스모스라도 흐드러지게 피는 가을녘엔 인기있는 둘레길이 부럽지 않다. 한번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봤는데 바람은 왜 그리 시원하던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즐거운 느낌이 남아있다.

홍대용 생가지와 홍대용과학관, 홍대용 묘를 다 둘러봤다면 상록리조트에서 허기도 채울 겸 식당을 찾거나 카페에서 차 한잔 여유있게 마시고 일정을 종료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



[홍대용생가지] 한때 복원바람도 불었던 홍대용 선생 생가지는
아직도 생가지를 알리는 표석만이 세워져 있다.

장산리는 자그마한 시골마을이다. 마을풍경이 독특하다거나 다른 마을에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을 주는 마을이 아니다. 산기슭에 자리잡은 장산리. 앞에는 병천천이 흐르고 그 너머로 바리박산이 자리잡고 있는 곳,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평안한 동네이다.

어찌 이런 시골마을에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 평생을 보냈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멀지 않은 곳에서 김시민 장군이 유년시절을 보냈고,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 자란 병천 아우내가 있다 보니 이해가 된다. 김시민 · 홍대용 · 유관순이란 인물이 가까이 삼각벨트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새로운 발견이다. 그것도 태어난 연도로 살펴보면 김시민(1554)이 태어난지 177년 후 홍대용(1731)이, 또다시 171년 후 유관순(1902)이 태어난 건 어떤 계산된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최고인 시대, 오직 높은 절개와 고고한 기품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간 담현 홍대용 선생.

그의 고향은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였다. 그의 조부 홍용조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집안의 본거지를 이곳에 두고 뿌리박게 되면서 대대로 천안사람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헌 홍대용(1731~1783) 선생은 1731년(영조7년) 4월7일 천안 수신면 장산리 수촌마을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고학에 뜻을 두고 과거시험 공부나 하는 속된 유학자는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홍대용은 양주 석실서원 미호 김원행 문하로 들어갔다.

김원행은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지내는 산림(山林)의 한 사람으로 명망을 받았다. 그의 사상은 이황의 주리설과 이이의 주기설을 절충한 김창협 학설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의 문하에 순수 성리학자들이 배출됐고 몇몇 실학자도 배출되었다. 그의 학통을 이은 제자로 이안, 박윤원, 오윤상, 황윤석, 그리고 홍대용 등이 있다.

홍대용은 석실서원에서 10여 년을 수학했고, 이십대 중반에는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과 깊이 사귀었다. 석실서원은 경학은 물론 우주변화의 원리를 주역의 꽈나 수학적 원리에 연결시켜 논의하는 상수학(象數學)의 전통이 강한 곳이었다.

홍대용 또한 석실서원에서 배운 것이 평생의 지식이 되어 자명종 시계의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 돌아가는 혼천의를 활용한 통천의(統天儀)라는 기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장산리 자신의 집 마당에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다락과 정자를 지어 통천의를 설치한 후 그 안에서 하늘을 관측했다. ‘농수각(籠

水閣)’이란 이름의 조선 최초시설인 천문대가 탄생한 것이다.

선생은 이곳에서 하늘을 관측하여 천체의 운행법칙을 알아내고자 했다. 당시 학자들이 음양오행설에 의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스스로 천문대를 설치하고 실제로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천문학을 이해하려 한 것이다.

사설천문대 농수각에서 하늘을 직접 관측하여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도 적용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평등(四民平等)을 주장한 천문학자였다.

그는 또 동양에서 최초로 지구가 자전한다는 지전설(地轉說)을 주장했다. <땅덩어리는 하루동안에 한 바퀴 도는데 땅의 둘레는 9만리이고, 하루의 시간은 12시진이다.> 이같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돋다는 자전설과 무한우주론 같은 천문학에 관한 주장이었다.

역대 천문의기 제도를 탐구·제작하고 농수각이라는 사설천문대를 설치하는 등 음악과 수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사상가’로 대단한 자질을 보인 홍대용 선생, 그는 18세기 후반 실학의 대표적 학자였다.

그런 홍대용을 일컬어 연암 박지원은 “통달하고 민첩하며, 겸손하고 우아하며, 식견이 원대하고 이해가 정밀했으며, 더 육이 울력에 뛰어났다”고 평했다.

홍대용을 오랫동안 연구한 김태준 박사는 “담현이 거대한 학문체계를 세우거나 방법론을 추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18세기 실학을 조선역사의 전면에 자리매김한 인물로, 그의

진면목은 서물(庶物)을 종합하는 통합과학의 능력보다도 그 스스로 힘썼던 선비정신과 사람됨이다”라고 했다.

담현 홍대용 선생 저서는 담현설총(湛軒說叢), 담현 필담(筆談), 담현 연기(燕記), 연경수행록(燕京隨行錄)과 의산문답(醫山問答), 담현기(湛軒記)가 있다.

의산문답은 박지원의 한문소설 ‘호질’과 닮아있다. 소설적 결구로 보아서는 호질이 단연 뛰어나고 철학소설로써 주제를 이끌어간 박력으로는 의산문답이 두드러진다. 국가운영의 모델을 제시한 ‘임하경륜’과 2600쪽에 이르는 ‘을병연행록’을 지어 국문학사의 한 장을 장식하기도 했으며 서민시집인 ‘대동풍요’도 편찬했다. 책은 전하지 않고 서문만이 홍대용의 <담현서> 내집 권3에 남아있는 <대동풍요>는 예부터 전해온 국문시가를 뽑아 만든 두 권의 책이다. 여기에는 1000편이 넘는 노래와 별곡 수십편이 실려있다.

그런 그에게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 센터가 2005년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돌고 있는 새로 발견된 소행성의 별을 ‘홍대용별’이라 이름짓기도 했다.

그리고, 한때 관심이 치솟았던 담현의 생가복원 문제는 미흡한 생가지 고증 탓에 2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잡풀만 무성하다. 2003년은 담현 홍대용(1731~1783) 선생 생가복원 열의가 뜨거웠던 해다.

담현 생가지가 있는 곳은 수신면 장산리. 당시 면장과 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생가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홍대용과학관 전경

담현의 후손으로 생가 인접한 곳에 살던 홍승엽씨도 담현의 생을 죽는 이들의 내왕을 반기고 있었다. 게다가 수신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생가복원을 갈망하는 열망을 보여줬다.

그런 노력으로 2005년에는 천안시가 담현 생가복원 및 전시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담현 유적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담현 생가지 주변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거치는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밟았다.

2007년 5월 천안시는 ‘홍대용 테마과학공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홍대용 테마과학공원 조성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그런 일련의 관심과 과정을 거쳐 2014년에 담현 생가지 근처에 개관한 ‘홍대용과학관’은 천안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곳은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담현의 위대한 과학사상을 알려주고, 현대 천문과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홍양호선생

조선의 석학, 이계(耳溪) 홍양호 선생

천안도심엔 봉서산, 월봉산, 일봉산, 수도산이 섬처럼 자리잡고 있다. 이름도 재미있다. 이들 중 셋은 ‘봉(鳳)’자가 들어있다. 특히 해와 달을 뜻하는 월봉산·일봉산이 이어져 있는데, 어느 자료에는 이들 두 산의 높이가 133미터로 똑같이 표기돼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일봉산에는 다른 도심산에 없는 역사인물, ‘홍양호 선생’의 묘가 정상 바로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 신성아파트 뒷길을 따라 일봉산에 오른다. 역사인물을 도심 가까운데서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게 신선하다. 발걸음도 가볍다. 나무도 보고 나뭇잎도 보



[홍양호묘] 전안 일봉산 정상 바로 아래에
홍양호 선생 묘가 자리하고 있다.

고 꽃도 보고 풀도 보고…, 아이처럼 이리저리 한눈을 팔며
느릿느릿 걷다 보면 어느덧 일봉산 정상이다.
곧 홍양호 묘를 찾았다.

영조 임금도 의문나는 게 있으면 홍양호에게 물어서 시행
했다고 전해지듯, 그는 학식이 넓고 깊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홍양호 선생은 1747년(영조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175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777년(정조1) 홍국영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경흥부사
로 밀려났다가 홍국영이 실각되면서 1781년 한성부우윤이
되었다. 평안도관찰사, 이조판서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
고 1799년에는 홍문관·예문관 양관(兩館)의 대제학을 겸임
하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쳐 북경을 다녀오면서 청국 석학들과의 교유

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계 홍양호(耳溪 洪良浩, 1724~1802)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의 틀을 강하게 부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조선은 중국에 끊임없이 사절단을 보냈다. 중국은 거대국가였고 조선은 그들이 가진 문명적 지식을 배워야 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송상하여 섬기는 ‘모화(慕華)’사상을 가진 선비도 많았다.

이런 사대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으니 노가재 김창업, 담헌 홍대용, 연암 박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오로지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두루 살피어 기록했는데, 수많은 여행록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3대 산문집으로 꼽힌다.

조선의 수많은 여행사절 중에 탁월한 학식으로 문명을 떨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홍문관과 대제학까지 오른 홍양호다. 그는 “중국이라는 곳도 우주에서 바라보면 손안의 손금에 불과하다”며 중화주의 틀을 강력히 부정했다.

이계는 천하를 돌아다니는 방식에 ‘족유(足遊) · 목유(目遊) · 심유(心遊)’가 있다고 했다. 제대로 그 허실을 살피지 못하면 그냥 발로 돌아다닌 족유, 상대의 허실을 눈으로 제대로 보았다면 목유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스림을 살피고 성쇠(盛衰)를 간파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살피는 심유다.

진재교 성균관대 교수는 이계를 연구하며 “나라의 현실을 파악해 객관적인 동향과 대응을 촉구하는 이계의 사고는 당대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홍양호에 대한 기록을 보면 1781년 두만강의 물줄기가 바

끼어 조선 경계 안쪽으로 흐르게 되자 강역이 변하게 될까 염려했다는 내용도 있다. 1781년 12월 ‘승정원일기’에는 백 성들의 생업과 녹둔도가 두만강 이북 청나라 영토로 넘어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가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 백성들의 땔감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둑을 쌓아 두만강의 옛 물길을 회복해 영토를 보전해야 한다>는 장계를 정조에게 올린 바 있다.

한편 이계는 영조실록, 국조보감, 간장록, 동문휘고 등 각종 편찬사업을 주관했다. 지방관의 지침서인 ‘목민대방(牧民大方)’과 이계집 37권 외에도 육서경위, 군서발배, 격물해, 칠정변, 해동명장전, 고려대사기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문장이 바르면서 숙련되고 법칙이 있어서 당시 조정의 신료 중에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글씨도 진체(晉體)와 당체(唐體)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곡산의 신덕왕후사제구기비(神德王后私第舊基碑)와 수원성(水原城)의 북문루상량문(北門樓上梁文)이 대표적이다.

홍대용의 6대조, 홍진도 선생도 천안과 인연



홍대용의 6대조인 홍진도(1584~1649) 선생도 천안과 인연이 있다.

1613년(광해군 5) 처음 별제를 거쳐 목천현감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목천현은 그의 손자 대인 홍용조(1686~1741)가 수신 장산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단초를 제공했을 수 있고, 다시 홍용조의 손자인 홍대용으로 그 터 전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

이후 의금부로 전임된 홍진도는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해짐을 보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굉(具宏) · 신경진(申景禛) 등과 모의하니 야우 홍진문(洪振文)도 이에 참여하였다.

홍진도는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공조좌랑에 특진되고, 이듬해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어 남양군(南陽君)에 봉해졌다. 그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인물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1625년 부평부사 · 오위도총부부총관을 거쳐 1631년 공주목사가 되고, 선정을 베풀어 가의대부에 승진하고 한성부우윤을 역임한 뒤 남양부사가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고, 이듬해 자현대부에 올랐다. 1635년 병자호란 때는 신경진 등과 화의를 주장하였으며, 그 뒤 판의금부사 · 한성부판윤 · 판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남양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천안 성남면 봉양리 홍진도 종가에서 홍진도 선생의 영정 1폭을 갖고 있다.

가슴으로 만나는 천안길풍경

발행인 이관섭

감수자 기획위원회

편저자 김학수 노준희 윤성희 윤평호 이정우

인쇄 2024년 11월 10일

발행 2024년 11월 15일

제작 도서출판 한국문화 041) 573-5977

펴낸곳 천안시서북구문화원

3101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TEL 041-581-2101, FAX 041-582-1725

ISBN 978-89-6531-169-0

비매품

- 본 자료집 내용에 대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자료 내용은 펴낸 곳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도서는 2024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